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22일)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온라인 템플스테이로 '코로나' 파고 넘는다

불교문화사업단 1월 28일 신년기자회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한 템플스테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홍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한다. 또한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았던 방역관계자 ·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도 확대해 코로나19 극복에 일조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월 28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올해에도 이어지는 만큼 사업들의 초점은 '코로나19 극복' 과 '포스트 코로나' 로 맞춰졌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며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회공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를 극복 하기 위한 공익적인 템플 스테이 강화 체험기 등 유튜브도 활용해 비대면 불교 문화체험 유도 2022년 2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적 발전 계획 모색도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해 의료방역 관계자 2400명, 소상공인 · 여행업계 관계자 3500명에게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를 무료 운영하며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 블루(우울증) · 레드(분노)에 대한 사회치유를 위해 '대국민 코로나19 특별치유 템플스테이' 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2만4000여 명의 국민이 사찰을 찾아 몸과 마음을 쉬어갔다. 의료방역 관계자와 소외이웃 등 1만 6000여 명에게 사찰음식도시락과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도록 토닥토탁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던 쓰담쓰담 템플스테이의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교문화사업단은 쓰담쓰담 ·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와 같은 무료 사회공익 템플스테이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를 입은 문화 · 예술 · 공연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치유 템플스테이의 경우 참가비 할인 지원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경 스님은 "현재 운영 중인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를 전년 대비 70%이상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대국민 힐링과 사회통합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원경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과 온라인이 중심 키워드"라고 전망하며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불교문화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사업단은 △온라인 홍보 △방송 영화 제작 지원 △사찰음식 온라인 주간 △웹툰 · 영상 ·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템플스테이 웹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확대된 국내외 관광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템플스테이의 지역 연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방공항 · 기차 등 템플스테이와 지역문화관광을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며, 템플스테이 외국인 전문 사찰 육성 · 통역 인력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제관광 수요 회복에 대비할 계획이다.

2022년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발전 계획 마련도 올해 불교문화사업단의 주요 사업이다.

원경 스님은 "2002년 탄생한 템플스테이가 청년기에 접어들며 어른으로 성장한 만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면서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사업과 정책 연구 세미나를 바탕으로 템플스테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조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라진 참가자의 니즈와 생활문화에 대응하는 시설 구축으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장의 이름으로 봄이 온다

立春, 봄이 한 발짝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봄의 전령 양산 통도사 자장매가 꽃잎을 피우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분홍빛의 꽃잎들은 시시각각 진한 생명과 빛깔을 더하며 우리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자장 스님의 이름으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먼 길을 왔던 것처럼 오늘은 자장의 이름으로 봄이 오고 있다.

글=박재완 기자,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 이끈 '오대산 3화상' 조명한다

월정사, 만화 선사 탄신 1백주년 기념사업 '풍성'

한암 · 탄허 · 만화선사 등 3화상의 사진전 및 세미나 사진집과 다큐영상 제작도

오대산 월정사에는 법맥을 잇는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 등 세 명의 대표 선사가 있다. 이른바 오대산 '3화상' 이다.

한암 선사(1876~1951)는 1941년부터 45년까지, 그 후 1948년에도 종정을 지내는 등 총 4차례나 종정을 역임했으며, 탄허 선사(1913~1983)는 〈신화엄경합론〉 〈육조단경〉 〈보조법어〉 등 수많은 경전을 완역했고,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만화 선사(1922~1983)도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월정사를 중창했고, 한국불교 실천적 선구자로서 만화선풍(萬化禪風)을 일으켰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를 중창한 만화당 희찬 선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불교계에 대족적을 남긴 '오대산 3화상' 한암 · 탄허 · 만화 대선사를 한자리에서 조명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월정사(주지 정념)는 올해 만화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오대산 3화상 기념 사업' 을 기획한다. 주요 사업 내용의 골자는 △오대산 3화상 사진전시회 및 사진 도록과 사진집 발간 △오대산 3화상 동영상 제작(한암선사 1편, 탄허선사 1편, 만화선사 1편)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다큐 제작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 및 단행본 발간 등이다.

행사 및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4월 16일부터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서 '만화선사 100주년 기념 세미나' 를 (사)한국불교학회 주관으로 개최한다. '한국전쟁 후 오대산 등불이던 만화' 를 주제로 펼쳐지는 1부에서는 △'만화희찬의 생애 정리' (김광식) △'만화의 적광전 중창과 상량문 분석' (고영섭) △탄허의 수제자로서의 위상과 만화의 제자들' (박부영) 등을 발제한다. 이어 2부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한 연구' 편에서는 △'신효의 월정사 수조(修造)와 사명(寺名)의 특수성 검토' (자현 스님) △'오대산 중요 암자의 위치 및 동선과 시대에 따른 변화 양상 검토' (권혁진) △'오대산의 생태적 특징과 자연 유산적 가치' (이민혁) 등이 발표된다.

이어 5월부터 10월 '오대산 문화축전' 까지 약 5개월간 사진전도 열린다. 이를 위해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을 위원장으로 하는 '3화상 사진집 간행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 현재 관련 자료를 취합 중이다. 간사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간행 위원으로는 원행 스님 삼보 스님 인보 스님이, 실무 추진위원으로는 자현 스님(월정사 교무국장), 지철 스님(월정사 미디어실장)이 맡는다. 우선 5월 사진전 오픈에 맞춰 100권 정도의 한정판 도록을 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내년 한암 스님 다례재에서 봉정할 예정이다.

또한 월정사 미디어실 주관으로 '오대산 3화상' 에 대한 다양한 증언과 일화를 수집해 유튜브용 동영상으로도 제작한다. 2월 초부터 만화 스님의 맞상좌인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을 시작으로 '3화상' 을 기억하는 유튜브 영상을 매주 1편씩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만화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도 사진 자료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으로 보는 근현대 한국불교' 를 주제로 기획된다. 이외에도 월정사는 만화 스님의 생애와 세미나서 발표된 관련 학술 논문 등을 모은 단행본을 펴내, 늦어도 올 8월 8일 만화당 희찬 선사 다례재 때 봉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현 스님은 "사진을 가지고 한국불교의 근현대를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기획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근현대 한국 불교사를 정리하는 이번 기념 사업이 문도회의 자부심을 높이고, 나아가 포교 차원에서 한국불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오대산 3화상 사진집 간행 추진위원장 현각 스님도 "부처님 법이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소홀해지지 않는 것처럼, 근본 뿌리와 연결된 역사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오대산과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정리해 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념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월정사는 3화상 스님들의 사진을 소장한 스님이나 불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02)732-2403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 포교원 신년기자회견

"'사회교감' 승가교육 화두"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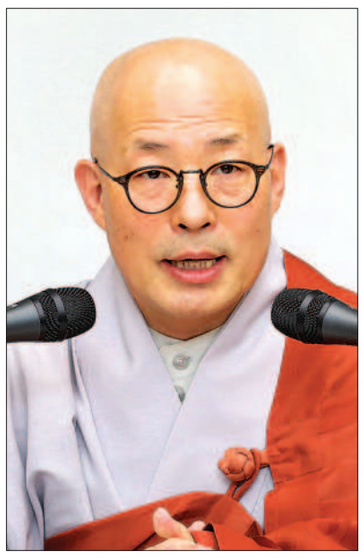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사회와 교감하는 승가 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개론서 발간을 추진한다. 종단 스님들의 연수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승가교육 정책 기조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 승가교육 정책의 키워드로 '효율성'과 '사회교감'을 제시했다. 출가자 감소와 코로나19라는 교육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일상의 언어로 사회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승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효율적 승가교육을 위한 첫 과제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기본교육기관 조정을 꼽았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기본교육기관 조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다만 교육기관별 간담회를 진행해 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는 추가 의견을 보완하고 종단 주요 기관과 심도있게 논의해 가시적 조정안에 다가서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해 진우 스님은 "통합과 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안으로 대략적인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기본교육기관 조정은 현재 종단 출가자 감소 문제와 맞물려 있다. 출가자 감소에 따른 효율적 승가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승가교육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기본교육기관 조정, 지속추진
사회와 교감할 인재양성 위해
일상 언어 불교개론서 발간도
온라인 연수 · 출가 홍보 강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교육 분야 중 하나는 스님들의 연수교육이었다. 올해 조계종 교육원은 온라인 연수교육을 전체 교육의 90%까지 전면 확대해 '비대면 연수'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법계과정 온라인 연수교육 운영 △연수 교육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접수 · 연수 시스템 운영 △신규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의 세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진우 스님은 "연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대면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변화되는 종도들의 교육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해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가 장려 캠페인도 온라인 분야가 대폭 강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 하반기 출가사이트를 리뉴얼하고 채팅 상담과 모바일 기능을 도입했다. 행자들에 대한 집체교육이 어려운 만큼 습의, 염불 등을 사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 시행 중에 있다.

사회와 교감하는 승가 인재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불교를 현대적으로 명철하게 재해석한 불교개론서" 발간도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교육원 내에 편찬위원회가 2월 중 구성되며, 부처님 생애 · 초기불교 · 대승불교 · 한국불교사 등 개론서 목록화 작업과 집필자 선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간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기존 개론서는 기초적인 교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대적 언어와 사고로 정립한 불교개론서를 발간해 승가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일반 대중도 해당 개론서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일상의 언어를 불교에 적용해 새로운 불자상, 승가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한국불교는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행혁신 지속 터전 마련"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제7대 포교원에서 진행해 온 신행혁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코로나 이후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수행 지원, 활동이 어려운 청년불교 활성화 등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포교 종책 기조 및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은 기복문화에서 수행문화로의 전환이란 기치를 걸었던 '신행혁신' 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홍 스님은 "7대 포교원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성과를 회향하겠다"며 △불교성전의 편찬 발간 △〈불교 5대수행법 길라잡이〉를 심화한 〈불교수행법 지침서〉 발간 △〈불자생활의례〉의 사찰활용을 위한 〈불자의례집〉 발간 등 신행혁신운동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홍 스님은 "종단본 〈불교성전〉은 생활 속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향후 각종 법회나 행사시 설법 문안 등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대 포교원에서 진행한 전국포교지도 완성과 SNS신행혁신, 온라인포교 강화 등을 강조한 스님은 "27대 중앙신도회와 향후 출범할 제8대 포교원이 더불어 종단 신도조직의 새 도약을 이뤄줄 것을 기대한다"고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행혁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19 등 내외 악재에도
신행 혁신 소기의 성과 평가
생활의례 · 수행지침 등 보급
차기집행부에 지속성도 당부

포교원이 종단을 대표해 진행하고 있는 〈종단본 불교성전〉의 발간은 2월 말로 잠정 연기됐지만 막판 수정 등으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40년 만에 종단본이 나오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디오북, E북 등 불교성전 활용사업은 불교성전 기금으로 차질이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청년 포교 분야에서 대불련 불교학생회에 지도법사 스님 8명을 위촉하고 청년대학생신행축제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UCC공모전 등을 통해 창의적인 대학생들의 역량 표출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포교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수행애플리케이션 보급에도 힘썼다. 또 유튜브 불교콘텐츠 창작자를 지원하는 '고사리 채널' 운영도 선구적으로 선보였다. 이에 고무된 포교원은 대학동아리 지원을 비롯한 대학불교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홍 스님은 제7대 포교원 집행부 임기 말인 점을 감안해 임기동안의 소회와 제8대 포교원에 대한 바람도 함께 전했다.

스님은 신행혁신 운동이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전국적인 확산이 더뎠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우리 종단이 포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기본이 되는 교리와 수행, 의례를 잘 갖추고 사부대중이 알기 쉽게 잘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종단적으로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지역별 포교전략 수립, 교구본사와 사찰의 역량 증대, 지역 포교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통한 조직화"라며 "일관된 포교방향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신행혁신 운동, 불교성전 발간과 더불어 맞춤형 개발, 수행과 의례의 세밀한 제공 등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前 종정 혜초대종사 법문집 발간

혜초화상문도회, 1월26일 공개

혜초화상문도회(회장 재홍)는 제17 · 18 · 19세 태고종 종정 및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을 역임한 혜초당 덕영 대종사 법문집 〈한국불교태고종 제17 · 18 · 19세 종정 혜초대종사- 삶의 길 구도의 길〉을 발간했다.

혜초화상문도회는 1월 26일 문도회장 재홍 스님, 부회장 능해 스님, 사무총장 지웅 스님, 총무 성표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혜초화상문도회장 재홍 스님(태고종 고시위원장)은 "법문집은 스님께서 선암사에 주석하시며 학인들을 제접하시고, 신도들을 위해 설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혜초대종사께서는 열반하시기 직전까지도 우리 종단과 불자들의 안온은 물론, 국민들의 이고득락한 삶과 행복을 위해 온몸으로 정진하신 대선사였다"고 추모했다.

책은 △인생 그리고 해탈 △효도우란분 △수계와 교육 △수행정진 △사찰 및 종단불사 △미수 특별법문 △봉축 신년 안거법문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2023년 한국서 '세계불교여성대회' 개최

한국지부, 2월 총회에서
주제 · 방식 등 논의키로

전세계 비구니 승가와 여성 불자들이 참여하는 '제18차 세계불교여성대회'가 2023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한국지부(공동대표 본각 · 조은수)에 따르면 최근 '샤캬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인터내셔널'은 2023년 예정된 '제18차 세계불교여성대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결정했다.

세계불교여성대회의 한국 개최는 지난 2004년 '제8차 세계불교여성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전세계 비구니스님 등 수행자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가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불교적 가르침과 학문적 견지를 모아 대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인만큼, 계획대로 개최될 경우 한국 여성불교 발전에 큰 성과를 일굴 것으로 기대된다.

샤카디타 한국지부 사무국은 2월중 총회를 열어 구체적 일정과 명상, 논문 주제, 문화 교류 등의 행사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3월4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중앙선관위, 1월 22일 확정
통도사 · 고운사 · 관음사 3석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76차 회의를 열고, 현재 공석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3석에 대한 보궐선거를 3월 4일 오후1시에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선출하는 중앙종회의원은 통도사 · 고운사 · 관음사 직선직으로, 각 1석, 총 3석이다. 제15교구 통도사는 지난해 9월 입적한 각성 스님의 후임, 제16교구 고운사는 고운사 주지소임을 맡은 등운 스님의 후임, 제23교구 관음사는 함결 스님의 후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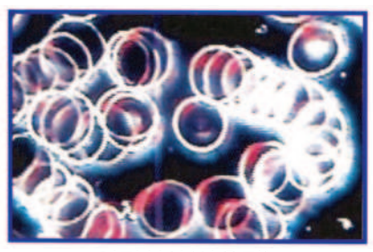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8일부터 10일까지다.

승랍 15년 이상, 세랍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스님이 대상이며,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원일 경우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2월7일까지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2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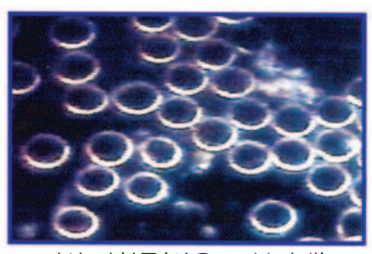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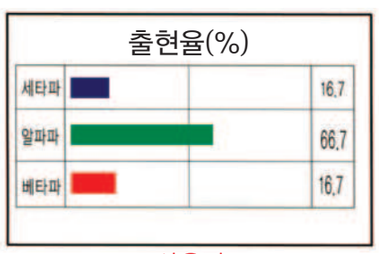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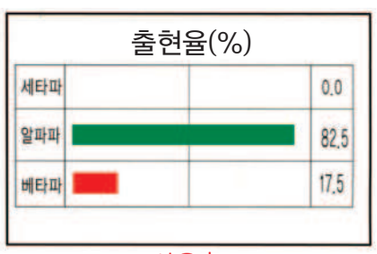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신년감사 특별세일 1월 18일 ~ 2월 10일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종교가치 사회화 이끌 '종무행정' 필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문화관광硏, 연구보고서
〈코로나 이후 종무행정 방향〉
급격한 변화 속 종교역할 주목

종교가치 · 역할 요구됨에도
시대적 변화에 대응 미흡해
중장기적 방향서 대안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급변하는 사회흐름 속에서 종교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며, 정부의 종교 관련 정책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탈종교화 가속화, 대국민 신뢰도 감소 등 종교계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향후 종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은 최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종무행정의 영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종무행정이 단순 종교활동 지원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종교 본연의 가치를 도출하는 가운데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우울과 갈등, 분열 등 다양한 문제가 급속히 확대되는 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종교의 위상과 역할은 감소 추세를 밟고 있다.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을 묻는 질문에 종교단체가 9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 신뢰수치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는 종교기관을 신뢰하지 않은 대표적인 연령대라는 점에서, 종교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맞이한 뉴노멀 시대에서 새로운 갈등과 정신적 ·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교의 보편적 가치가 주요한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종교 스스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종교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목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의 강점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신적 기능, 대국민 영향력과 사회적 활동 영역에 있는 반면, 약점은 종교에 대한 국민신뢰 감소, 사회갈등 확대 가능성(종교적 특수성과 사회적 보편성의 대립), 사회변화 대응 미흡(보수성)으로 꼽았다.

또 종교가 가진 기회 항목은 스트레스와 갈등, 소외 등 현대사회 문제와 관련한 수요증가, 뉴노멀 시대 감소될 수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 기능,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치유 수요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위협 항목은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여가활용방식의 다양화 등 일상에서의 경쟁분야 확대, 새로운 디지털환경 속 가치관과의 간극 등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 종교적 역할



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증가하지만, 종교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도태될 위험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무행정의 중장기적 방향성 전환을 제시했다. 종교계 내부적인 성찰과 변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의 일환에서 종교의 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종교문화연구센터(가칭) 건립을 통한 종교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종교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 사업 △종교의 평화적 공존 모델의 가치발굴 및 확산 △종교문화활동 지원 등을 꼽았다. 동시에 종무행정에 이를 반영할 때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종무행정 범위 제한, 절대적 세계관인 종교의 특성상 갈등 · 분열 극대화의 위험성, 종교간 가치의 차이 및 비종교인의 종교지원에 대한 공감 부족 등 위협 요인을 파악한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결국 코로나 이후 종무행정은 지속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종무정책 방향 설정 △종교별 독립성에 기초하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예술 · 인문 · 관광 등 영역과 종교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발굴 △종교문화에 대한 연구 · 홍보 · 교육 등 국민의 종교이해 기반 마련 △갈등 조정이 아닌 사전 예방 조치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규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 "종교는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며 "이러한 가치가 사회에서 구현될 경우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재 종교 활동에 대한 분석과 조사, 연구가 미흡해 적절한 정책개발과 계획수립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비대면, 뉴노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사회 등 미래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종무정책 또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구니스님 상장의례 모든 것

전국비구니회, 〈입적에서 다비까지〉 발간

규범 · 실용 갖춘 지침서
'비구니회원장'의 추진도



비구니스님 입적시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비구니 상장의례 실행서가 발간됐다. 입적 후 3일간 진행되는 상장의례의 전반적인 절차와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담아 매뉴얼화했다는 점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상장례시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최근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비구니스님 입적에서 다비까지〉를 발간했다. 이는 불교의례서를 전거(典據)로 하되,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장례준비부터 입적 후 상장례 진행과정과 장례 후 추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장례 실행서다. 책 발간을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지난해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수경) 주관으로 상장례연구회를 구성하고 1년간 연구 · 조사를 진행했다. 상장례연구회에는 수경 스님과 총무부장 보련 스님, 재무부장 지효 스님을 비롯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스님장례에 참여해 온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 박상희 전문위원과 유재철 연화회 대표와 이진선 연구원이 참여했으며, 본각 스님과 조계종 비구니 어산종장 동희 스님, 전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이 자문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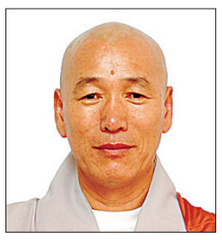
책에는 장례를 치르게 될 상좌나 소임자가 챙겨야 할 내용은 물론, 입적 후 상장례 진행과정에서 3일장을 기준으로 일별 진행사항과 실무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빈소와 분향소의 설치, 문도회의, 소임 구성, 입감과 상식, 대숙야와 영결식, 법구 이운, 다비 등이 총괄적으로 수록됐다. 장례명칭과 위패 및 명정 문구, 영결식장 현수막 문구 등 양식을 매뉴얼화했으며, 다양한 사례 사진을 함께 수록해 문중이나 사중 형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영결식 자료집과 영결식 사회자 진행원고, 영결 법요, 다비 사회자 진행원고 등 실질적인 자료를 첨부해 실용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책 발간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의 주력사업인 비구니스님의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 장례 지원을 복지의 종착점으로 보고, 앞으로 전국비구니회 차원에서 자신의 장례를 부탁할 연고가 없는 비구니스님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전국비구니회원장'도 새롭게 구상했다.

그 일환으로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전용다비장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다비장 협약 사업'에 대한 소개도 책에 함께 실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입적에서 다비까지〉와 함께 임종과 조문, 49재까지 전 과정의 규범과 실무를 담은 〈염불의례집〉도 함께 발간했다. 송지희 기자

종단협 사무총장, 관음 · 원융 · 법상종 3파전

도각 · 진호 · 해월 스님 출사표
2월18일 이사회에서 추천확정


도각 스님


진호 스님


해월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삼론종)의 임기가 지난해 말 완료되면서, 차기 사무총장 소임을 어느 종단에서 맡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관음종과 원융종, 법상종이 차기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단협은 2월 18일 '2021년 제1차 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 추천의 건을 다룬다. 이를 위해 1월 22일까지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진행한 결과, 부회장 종단인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과 이사종단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이사종단 법상종 해월 스님이 출사표를 던졌다. 종단협은 그동안 사무총장 자격을 상임이사 종단으로 제한해 왔지만, 지난 2017년 2월 일반이사 종단으로 확대했다. 前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이사종단에서 배출한 첫 사무총장이다.

차기 사무총장 추천방식은 후보 스님들의 공약 발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투표 혹은 합의추대 형식으로 절차를 확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임기는 3년.

관음종 부회장 도각 스님(진주 불명사)은 2003년부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2006년 진주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2015년부터 종단협 상임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구로 원융사)은 2015년부터 원융종 총무원장 및 종단협 이사 소임을 맡아왔으며 2017년부터 대한불교원융종 법인 이사장 소임을 겸하고 있다.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안성 쌍미륵사)은 2004년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거쳐 2005년부터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으며 2015년부터 대전교정청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올해 안성불교연합회장에 선출됐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디지털불교대 온라인 수강생 모집

3월 8일까지, 신도 전문교육 · 전문포교사 과정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강좌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교육기관인 디지털대학이 신학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디지털불교대학은 3월 8일까지 일반인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도전문교육과정과 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포교사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 A부터 Z까지 체계적인 공부의 시작'을 위한 신도전문교육과정은 불교 입문 강좌로 1년 2학기제로 운영된다. 3월 9일 개강해 3개월 동안 부처님 생애와 교리, 불교사의 이해, 불교수행의 이해, 불교문화, 금강경의 이해 등에 대해 배운다. 졸업생은 일반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19기 전문포교사과정은 전국의 포교현장에서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교사들을 위한 과정으로 2년 4학기제로 포교스피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포교프로그램, SNS 포교방법론, 조직관리와 지도자론, 심리상담사 2급,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3급 등 포교활동에 체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심 있는 포교사는 디지털불교대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한문으로 만나는 더 넓은 세상

2021년도 1학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
기본·심화과정
연수생 모집

문의
·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2층 202호
· 전화: 02-6713-5154, 5158
· 메일: hanmun@dongguk.edu
· 홈페이지: http://abc.dongguk.edu/academy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 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협력 교육기관

	월	화	수	목	금
기본과정	사십이장경	불교원전대독	맹자	구사론	불교한문법
	선암 스님	최종남	공근식	박인성	박영록
심화과정	금강경삼가해	문집선독	유불대론	기신론필삭기	고승비문
	이상하	선암 스님	성태용	대진 스님	박해당

■ 선발연수생
기본과정 혹은 심화과정의 선발전형 과정에 통과한 연수생

■ 일반수강생
기본과정에 한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원서 제출 후 등록

■ 수강료
선발연수생은 학기당 60만 원, 일반수강생은 과목당 20만원
수강료 할인 혜택 : 조계종 승려, 동국대 교직원 · 재학생 · 수료생, 타대학 재학생 · 수료생 등

■ 선발 연수생 전형
기본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심화과정 : 서류심사, 번역 필기시험, 면접전형
※ 출제범위 : 규봉 종밀 / 원각경대소석의초(권1)

■ 특전
선발연수생 : 성적 우수자 장학금 수여
조계종 승려 : 수강료 면제 · 기본과정 수료 시 3급 승가고시에서 교육 경력 2년 인정

● 모집기간 : 2021. 2. 1. 월 ~ 2. 19. 금
● 전형일시 : 2021. 2. 20. 토 10:30 ~ 15:00
● 합격발표 : 2021. 2. 22. 월 14:00 (예정)
● 수업기간 : 2021. 3. 2. 화 ~ 6. 14. 월 (15주)
● 수업시간 : 18:30 ~ 21:30 (과목당 3시간)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라 입학 전형 및 강의가 실시간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

“서래원서 봉은사 역사 담긴 두부 드세요”

서울 봉은사, 서래원에서 봉은 두부 · 빵 · 꽃 판매

코로나 한파, 사업으로 돌파
사찰 최초로 정식 사업 등록
2월엔 분식점도 개원할 예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래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서래원 내 ‘여여’에서 상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여여’ ‘로터스플라워’ ‘봉은두부’ 등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린 서래원 전경.

지난해 사찰 입구에 신도문화공간이자 전통문화체험공간 ‘서래원’을 개원한 봉은사가 서래원 내 두부, 빵, 꽃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하고 본격 영업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월 7일 서래원 앞에서 신도 ·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매점 마련을 축하하는 개점식을 열었다. 그동안 서래원 내에는 불교전통용품을 판매하는 곳만 있었다.

개원식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은사에는 신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찾는 만큼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우리 문화를 알릴 곳이 필요했다.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래원 내에는 빵과 음료를 판매하는 베이커리인 카페 ‘여여’와 봉은사의 조포사(제사에 올릴 두부를 만들던 사찰) 전통을 이어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는 ‘봉은두부’, 사찰을 장엄하는 꽃을 활용한 ‘로터스 플라워’ 등이 들어섰다.

서래원은 봉은역사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불교용품점 등이 위치했다. 불사과정에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지하에는 음식점 등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설비 등이 배치됐다.

이미 봉은사에는 여여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늘고 있다. 개점한지 2주만에 찾는 이들이 일평균 3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로 법회 등이 축소된 상황에서 코로나 회복과 동시에 신도들의 유입이 늘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봉은사의 이같은 사업 진행은 코로나 기간 기도 보시금의 축소로 인한 재정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은사는 2월 중 서래원 지하공간에 분식과 사찰음식, 국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도 개점할 예정이다. 앞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등을 활용하여 인근 회사원들의 방문 등도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4월 서래원 개원 이후에도 서래원은 정식 사업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동안 사찰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사찰이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비영리법인 자격이 박탈되기에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야 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 규정이 없었다.

현재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사찰의 경우도 별도 법인을 내 사업을 진행해야만 했으며 혹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해왔다. 별도 법인시 회계상 다른 사업체이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사찰 재정 투명화 등이 이미 진행된 봉은사의 경우 사업등록 문제가 개점을 가로막았다. 봉은사 측의 요청과 조계종 총무원의 노력으로 국세청이 규정을 개선해 비영리법인인 사찰이 본점으로서 사업목적의 지점을 개설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래원에서는 정식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원활하며 봉은사 또한 서래원 수익금을 사찰 목적사업 등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

봉은사 측은 “서래원은 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한편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불교상품들을 선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불교문화 저변확대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 마음거울108 ‘통합 앱’ 출시

마음거울108 일러스트 활용한 ‘컬러링 엽서북’도 개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행문화를 회복하고 불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용중인 마음거울108 모바일 앱 5종(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을 통합 · 개선하여 출시하고 마음거울 콘텐츠를 활용한 컬러링 엽서북 굿즈를 배포한다.



마음거울108 모바일 앱은 지난 8년간 108배 절수행과 명상을 돕는 수행도우미 앱으로서 불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사용자는 이제 마음거울108 통합 앱을 통해 별도의 추가 다운로드 없이 계층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콘텐츠 5종을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 마음거울108 컬러링 엽서북은 어린이 마음거울108 콘텐츠의 일러스트와 발원문구 중 30가지를 선별하여 제작되었다.

어린이 불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만의 색으로 빈 그림을 색칠하면서 마음에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완성된 그림은 책에서 손쉽게 떼어낼 수 있으며 뒷장에 메시지를 담아 엽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마음거울 시리즈에 이어 통합 앱 개발과 컬러링 엽서북 제작 총괄에는 원일훈 교수(홍익대 애니메이션학부)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포교원은 향후에도 포교원에서 개발한 포교콘텐츠의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필요와 요구에 충족되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음거울108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계층별 마음거울 108 단일 앱 5종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한다.

어린이 마음거울108 컬러링 엽서북은 전법중심도량과 어린이 · 청소년포교단체에 소량 배포할 예정이다. (02)730-6940

노덕현 기자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 한 · 영번역

조계종, 15년만에 재발간
원판 모습 반영해 디자인

세계최초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가 현대에 맞게 재탄생했다. 특히 한글과 영문번역서로 동시 발간돼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최근 〈직지〉 도서의 한글 및 영문번역서를 발간했다. 2005년 종단에서 처음 번역서를 발간한 후 15년만이다. 이번에 제작된 〈직지〉는 기본 번역본에 대한 대대적인 감수와 재편집을 통해 현대적인 언어와 전통을 살린 디자인으로 재탄생해 눈길을 끈다.



2027년은 〈직지〉가 인쇄된 지 650주년이 되는 해로, 종단은 한 · 영 번역서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불어 번역서 발간을 통해, 선불교의 핵심과 세계최초의 금속인쇄술을 가진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직지〉는 정식명칭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로, 백운 경한(白雲 景閑, 1298~1374) 스님이 엮었으며 백운 스님 입적 후인 1377년 세계 최초 금속활자로 주조됐다. 백운 스님이 스승 석옥선사로부터 전해 받은 〈불조직지심체요절〉의 간략한 내용에, 과거 7불(佛)과 인도 28조사(祖師), 중국 110선사(禪師)들의 방대한 게 · 송 · 찬 · 가 · 명 · 서 · 법어 · 문답 등을 첨부한 결과물로, 부처님과 조사들의 선의 요체에 대한 가르침 중 핵심을 발췌해 수록했다는 점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지침서로 일컬어진다. 송지희 기자

燈으로 유네스코 등재 기쁨 나눈다

연등회보존위, 2~5월 진행해
‘기원의등’‘희망의등달기’ 추진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쁨을 전국민적으로 나누며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연등회보존위원회(이하 연등회)는 올 2월부터 5월 부처님오신날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사찰 ‘기원의 등달기’와 ‘집집마다 희망의 등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사찰에서는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축하등과 코로나19 극복 기원 등’을 법당에 장엄하며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건강과 행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원을 담은 등을 만든다는 방식이다. 전통 팔모등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팔모등 만들기’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또 문양과 등표 시안 등 각종 자료들은 연등회 홈페이지(www.11f.or.kr)에서 다운로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향후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불교 · 시민 단체 프로그램 공모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역량있는 불교 · 시민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성공)는 전국 불교 ·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서류를 접수받는다.

선정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1000만원 이하 규모를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0월까지, 결과보고는 11월 5일까지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정분야에서 사회봉사 네트워크 사업, 기후변화 대책 등 환경분야, 인원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이며, 비지정분야는 경제, 생명, 방송, 여성, 남북통일사업 등 지정 분야 외 공익사업이다. 연대분야와 발전분야 지원대상도 모집중이며, 연대분야는 2개 단체 이상이 연대해 진행하는 사업, 발전분야는 최소 3년 이전 선정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자부담 50% 이상이어야 한다.

2월 9일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에 이어 2월 3~4째주 결과선정 후 개별통지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02)2011-1829 송지희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김태호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1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1년 3월 첫째주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인재 양성 · 남다른 포교 전략 '눈길'

[진단]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

1. 해외사찰 감소현황과 원인
2. 대안과 과제
3. 모범 해외사찰 사례
4.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① 미 동부 최대규모의 한국 전통사찰로 건립 중인 뉴욕 원각사. 사진은 2017년 10월 29일 무량수전 상량식. **사진제공=뉴스로** ② 한마음선원 해외지원 10곳 중 독일에서 봉행한 대행 스님 초청 법회. **사진제공=한마음선원** ③ 수행 전문도량인 텍사스 댈러스 보현사. **사진제공=지암 스님** ④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세대 교민포교에 성공한 뉴욕 불광선원. **사진제공=혜원 스님** ⑤ 미동부 지역 사찰들이 함께 봉행한 봉축행사. **사진제공=선명 스님**

조계종 소속 사찰 중 가장 많은 해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한마음선원이다. 독일 지원과 미국 뉴욕 지원, 로스엔젤레스 지원, 시카고 지원, 워싱턴 지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원, 뚜꾸만 지원, 캐나다 토론토 지원, 태국 지원, 5개 국가 10개 해외지원이 운영 중이다. 특히 독일과 태국에서는 유일한 한국사찰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감화된 지역교민들이 신도들의 가정집이나 별도 공간을 빌려 법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원력이 모여 해외지원으로 개원한 경우다.

교민 뿐 아니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도 적극적이어서, 현지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 한국불교를 알리고 홍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원은 현지방송에 소개되면서 현지인들의 방문이 늘었고, 이후 법문 번역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 참가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뚜꾸만 지원은 매년 새해맞이 촛불재를 비롯해 봉축법회와 제등행진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뚜꾸만전쟁 기념일에 호국영령 합동천도재를 봉행하는 등 현지사회와 정서적인 교류도 이어가고 있다.

태국지원은 정기법회와 신행회, 경전읽기 모임, 생활 속 참선수행 등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태국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아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뉴욕 '불광선원'

미국 뉴욕에 위치한 불광선원(주지 휘광)은 여러 측면에서 해외사찰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기독교 영향력이 압도적인 미국 교민사회에서 불교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포교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한마음선원, 해외 지원 10곳
해외 사찰 네트워크 중 최대
불광선원, 대표적 모범 사례
유학승의 지원 · 소임 시스템

기독교사회인 미국 내 한국사찰은 상당수가 개인 스님의 원력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찰의 규모나 신도 수에서 한인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1~2명 스님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찰을 운영하다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1세대 교민신자의 신행 지원을 넘어서긴 버겁다. 때문에 2세대를 위한 한국어 ·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할 여력이 없어, 불자가정조차 자녀들을 한인교회로 보내 한국어나 전통문화를 익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광선원이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 · 청년부를 운영하는 등 2세대 교민 포교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는 이유다. 특히 불광한국문화학교를 통해 한국어 · 한글 · 통번역 수업은 물론, 한국전통놀이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교민 자녀들이 한국적 정서와 가치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도록 해 호응이 높다. 일심회(고전무용), 참선반, 합창단, 산악회와 공심회(골프), 댄스스포츠 등 분야별 동아리는 물론, 경조사회와 장학회를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불광선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는 바로 장학제도에 있다. 뉴욕으로 유학 온 한국 스님들에게 장학금과 숙소를 지원하고 사중 소임을 맡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불광선원이 해외포교 인재양성의 산실로 알려진 핵심토대이기도 하다. 스님들은 불광선원에 머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하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사찰은 신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다.

주지 휘광 스님은 "장학제도는 해외포교에 관심을 가진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고 오랜 세월 적지 않은 수의 스님들이 불광선원을 통해 해외포교의 일면을 경험했다"며 "언어능력과 경험, 역량을 갖춘 이런 스님들이 해외포교를 위해 원력을 회향할 수 있도록 인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도법사가 부재한 해외사찰 등과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텍사스 댈러스 '보현사'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위치한 보현사는 지도법사 지암 스님의 원력으로 안정화된 사찰이다. 보현사는 1987년 댈러스 교민사회 내 신자들의 원력으로 창건된 사찰로, 지암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은 2010년까지 무려 30여명의 지도법사 스님이 거쳐 갔다. 이는 불자들이 사찰을 창건하고 한국에서 지도법사 스님을 모셔오는 해외사찰의 특수한 운영형태로, 스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사찰과 달리 신도들이 운영전반을 주도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사찰의 경우 스님과 신도간 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암 스님이 보현사 신도들의 요청으로 댈러스를 찾은 것은 2011년 무렵. 댈러스에 거주하는 한국교민 100만명 중 불교신자는 희귀할 정도로 적었다. 무엇보다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 해외불자들이 접하는 불교는 과거 기복 중심의 불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평생 수좌로 살았던 스님은 보현사에서 포교의 방편으로 '수행'을 택했다. 신행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찰, 즉 불교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사찰로 만들고자 했다. 즉각 선방을 꾸리고 참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존 신도층보다 교민 2세대인 청년들이 먼저 반응했다. 불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토대로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에 청년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재 활용 범위 대폭 확대
보현사 포교 노하우 '수행'
원각사, 최대 규모 불사로
압도적인 입지 구축 '기대'

자연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방 및 사찰운영 소임이 정해졌고 젊은 불자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기존 신도들의 신행활동에도 활기가 더해졌다. 유동성이 큰 이민사회의 특성상 꾸준히 참선수행을 지속하는 수는 많지 않아도, 이제 '보현사'라고 하면 참선, 수행도량으로 인식될 정도로 안정적인 터전을 일궜다는 평가다.

보현사는 현재 '정법수행도량'을 기치로, 일요법회와 선방모임, 참선, 불교대학, 청소년법회를 비롯해 보현회와 문수회 등 다양한 신행모임이 운영 중이며 세대 · 계층포교의 범위를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암 스님은 "한국에서 수행만 했지 사찰 소임을 맡아 신도들을 만나거나 포교활동을 한 경험도 부족했고 해외생활에도 서툴렀음에도, 어느새 보현사와 인연을 맺은지 10년이 됐다"며 "지난 10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불교의 본질적인 사치를 잘 전달한다면 어떤 곳에서도 포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신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 '원각사'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분원인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는 해외포교 역사상 독보적인 대작불사를 진행 중이다. 1970년대 법안 스님과 숭산 스님의 원력에 창건됐고, 1986년 현지의 위치인 솔즈베리밀스에 32만평 부지로 이전했다. 애초 법안 스님은 국제불교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지만 병환으로 불사가 쉽지 않았고, 2004년 정우 스님이 주지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불사의 토대가 일궈졌다.

원각사는 현재 미동부 최대의 한국전통사찰로 건립 중이다. 수령 1000년의 나무를 원자재로, 못을 박지 않고 짜맞추는 한국전통 목조건축기법을 적용했다. 미국의 넓은 대지에 세워진 가장 한국적인 사찰은 그 자체로 한국불교 포교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015년 대웅전의 면모를 갖췄고 현재 무량수전과 선방인 동방 · 서방의 건립이 마무리 단계다. 현지 신도들은 물론, 한국불자들의 십시일반 동참으로 진행되는 불사인 만큼 한 · 미불자들의 원력을 한데 모은 공동불사인 점도 의미가 크다.

원각사 신도이자 지속적으로 불사과정을 취재해 온 로창현 뉴스로 대표는 "원각사는 법안 · 숭산 · 정우 스님 세분 원력의 결집체로, 한국 전통적인 목조건축물과 야외 청동불상의 독특한 아름다움 자체만으로도 한국불교 포교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미 근처를 지나는 미국인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아 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지에서 한국불교와 그 문화적 가치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건물에서 신도들의 신행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매주 일요법회와 불교교리 강의, 명상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청년 불자모임이 특히 활성화됐다.

원각사 사례는 한 · 미 신자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기반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사찰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다. 다만 한국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의 모범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 (1통화, 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 (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법화경 100만독, 코로나 극복 원동력되다

천태종 광명사 1월 25일 법화경100만 독송 회향

〈초심자 천태소지관〉의 강좌
기도 · 교육, 균형 유지 눈길
"정진으로 업을 지우는 시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법화경 100만독 독송을 회향했다. 법화경 독송 정진을 통해 불자들은 힘든 코로나 기간을 견디고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광명사(주지 개문)는 1월 25일 '법화경 독송 100만독 정진'을 회향했다. 법화경 독송은 지난 해 10월 15일 입재했으며 하루 1만독 독송으로 총 100일 간 100만독 정진으로 진행됐다. 하루 평균 4시간이 걸리는 독송기도로 참가한 불자들은 코로나 기간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집과 법당에서 각각 수행했다.

광명사는 매주 토요일 총 15회에 걸쳐 〈초심자를 위한 천태소지관〉 특별강좌도 진행했다.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이 법사 스님을 맡아 교육을 진행했다.

〈초심자를 위한 천태소지관〉은 천태지자대사의 〈약명개몽초학좌선지관요문(略明開矇初學坐禪止觀要門)〉을 광도 스님이 번역한 책으로 초심자들이 좌선하며 지관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또, 천태종의 핵심사상인 〈지관止觀〉을 밝힌 천태지자대사의 원문을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경〉에 의거하여 알기 쉽게 번역해 두었고, 일반 신도들의 눈높이와 수행의 실천 등을 포함하여 지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천태소지관'은 천태종의 주요 교리 가운데 〈공가중(空假中)-삼제원융〉 사상 중 〈공(空)〉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돕는 공부의 첫 입문서이다.


광명사는 1월 25일 '법화경 독송 100만독 정진'을 회향했다. 사진은 1월 23일 진행된 천태소지관 강의 회향법회 모습.

회향에 앞서 1월 23일 광명사는 '천태소지관' 강의를 회향했다. 회향 강좌에서 광도 스님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고 독송 기도를 해온 불자들에게 "뛰어난 수행 근기를 가진 광명사 불자들"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인간들의 업이다. 업을 소멸하는 방법은 수행이며 기도이다. 코로나처럼 힘든 시기에 불자들이 더욱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광도 스님의 '천태소지관' 강의는 광명사 불자들 뿐 아니라 전국 천태 불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유튜브 천태종 부산광명사에서는 높은 조회수를 보였고 교재 〈초심자를 위한 지관(止觀)〉은 매주 구입 요청이 쏟아졌다.

이번 광명사 법화경 100만독 독송정진은 기도와 정법으로 균형 잡힌 수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불자들은 독송에 동참하며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힘든 시간도 잘 극복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은(56 · 부산 동래구) 불자는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독송기도를 하는 동안 정말 근심이 사라진다. 잡념이 안 생기고 편안함을 느낀다"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느끼니 스스로 찾아서 하고 진실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춘옥(63 · 부산 해운대구) 불자도 "기도 전에는 건강이 안 좋아 불안하고 근심이 많았는데 건강을 되찾았다"며 "제가 건강해지니 가족 모두 평안해지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정말 신장님들이 보호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이번 법석은 주지 개문 스님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1월 25일 천태종 주지 인사 발령으로 타 사찰에 임명됐다. 불자들은 주지 스님과 그동안 강의를 해준 광도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올렸다. 법회를 마치고 나가는 길을 불자들이 양 쪽으로 서서 합장하고 박수치며 고개를 숙였다.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며 불자들은 합장했다.

주지 개문 스님의 마지막 인사말은 다름 아닌 정진에 대한 당부였다.

개문 스님은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가 된다. 법화경을 만나면 여러분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된다"며 "100만독 기도불사와 감로법문인 천태소지관 강의를 듣는 것이 큰 공덕이다. 이차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사단 부산 대중공양 회향

조계종 부산포교사단(단장 정분남)은 1월 27일 범어사에서 '동안거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부산포교사단 지난 해 11월 30일 부터 70일간 법화경 독송 정진기도를 이어왔다. 부산포교사단 산하 각 팀은 매일 릴레이 형태로 동참해 법화경 독송 기도를 진행했으며, 2월 7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부산포교사단은 코로나 기간에도 수행정진을 잊지 않기 위해 독송기도를 강조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하안거에 이어 두 번째 독송 기도이다.

회향에 앞서 부산포교사단은 승가를 위한 대중공양을 올리며 스님들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중공양금은 각 팀에서 기도 중 보시한 기도비로 마련됐다. 부산포교사단은 꼬마김밥, 유부초밥, 버섯탕수육, 호떡 등 특식을 직접 조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포교사단은 1월 27일 범어사에서 '동안거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부산 천불정사서 국가고시생 감사인사

부산 천불정사에 5급 국가고시 합격생들이 방문해 감사 인사를 올렸다. 천불정사가 5급 국가고시를 위해 후원하고 있는 부산대 고담정, 신목정, 기맥정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다.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월 27일 국가고시 합격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천불정사 내 법당에서 마련했다.

고담 스님은 행정 · 기술 고시에 최종 합격 한 최연석(경제학과 12학번), 조현진(전기공학과 14학번), 김일(전기공학과 08학번) 학생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건강을 기원했다.

고담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던 바를 성취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학교에 큰 선물을 안겨줬다"며 "자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앞으로도 맡은 직분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불정사 고담정은 5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이며 신목정과 기맥정은 학생들의 독서실로 부산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1월 23일 법당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 시상식을 진행했다. 표창장은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적극 동참한 공로로 신희숙 교정위원이 수상했다.


천불정사는 1월 27일 국가고시 합격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천불정사 내 법당에서 마련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주최하는 연말 시상식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취소돼 고담 스님이 대리 수령해 전달한 자리이다.

수상한 신희숙 교정위원은 "전수식에 함께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교정교화 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소외 이웃 위해 급식 · 기부

"한수행 자비 나눔 실천 위해 노력"

재단법인 신뇨엔이 자비나눔으로 보살도를 실천했다. 신뇨엔은 현재 한수행 기간이다. 수행기간 동안 참회 기간을 거친 후 자리이타를 통한 보살행을 중요 덕목으로 삼는다. 신뇨엔의 자비나눔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외 이웃들에게 회향됐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은 1월 22일 효심사 7층 무료급식소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효심사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 나눔 도시락에 후원되며 매달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효심사는 매주 금요일 소외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 나눔 도시락 50인분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락은 관내 동사무소에 전달되며 반찬 3가지와 국, 과일 및 떡 등 각종 음식을 소포장해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뇨엔은 성금 전달을 통해 한수행의 자비나눔 실천을 강조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경 국원은 "한수행 실천 자비 나눔의 일환이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분들이 효심사의 정성스런 도시락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힘든 상황을 같이 나누고 싶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효심사 주지 효문 스님은 "신뇨엔 불자에게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이 많이드는데 이런 시기에 관심을 가져줘 더욱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나은 음식을 제공 하기 위해 더 노력 할 것이다"고 인사를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은 1월 22일 효심사 7층 무료급식소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남 파라미타 2021년 새 출발 다짐

(사)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도문 · 이하 경남파라미타)는 1월 21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에서 '경남파라미타 정기총회 및 지도자회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남파라미타 총재 도문 스님,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화상회의에는 경남파라미타 임원과 지도교사들이 동참했다.

경남파라미타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아울러 새롭게 지회장 및 지도자 인사를 정해 발표했다.

경남파라미타 수석부회장에는 하병형 삼천포공업고 교감이 선임됐으며 부회장에는 김재정 밀양동강중 교장, 강창욱 생림중 교장, 권순희 이작초 교장이 맡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1월21일 '정기총회 및 지도자회의'를 진행했다.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 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신입생 모집기간
대광사 종무소 접수 및 전화신청 후 입학원서 제출

■ 학 제 : 3년 6학기 과정 / 주야, 화·수·목
■ 교과배정 비율 : 이론70%, 실기30%
- 불교교리 30%, - 심리상담 40%, - 명상 30%
■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붓다의 깨달음을 천태법화의 수행관으로 편성한 공空, 가假, 중中 세단계를 점차로 닦아 삼제원융(三諦圓融)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한다.
■ 수 강 료 : 1학기당 17만원 / 기업 031 715 7000 / 사단법인행복명상
■ 수료후특전 : 명상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교 통 : 분당선, 신분당선 / 정자역, 미금역 3번출구 마을버스 1번, 2번,19번 / 오리역 7번출구 마을버스 19번

과 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 격	전형요강	수강료	자격증
空 기본 (1년)	【화요일】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학력,종교 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 면 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학기당 17만원	명상 상담 지도자 2급
		2학기	• 명상(이론, 실기병행)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요일】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2학기	• 성격심리학 • 유식과 명상				1급
中 전문 (1년)	【목요일】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학기	• 자비명상				
요 가	【화요일】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 수	매월 3만원	-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30 Tel. 031)715-3000, Fax 031)715-3409 홈페이지 http:// www.daegwangsa.org

“한국 전통음악, 범패 세계에 알려요”

[인터뷰] 도올 아들 김일중 씨가 옥천범음대 다니는 이유

加 브리티시컬럼비아대서 연구
에트넘 뮤지컬로지 논문작성해
어려서 불연, 봉원사 아래 자라
2020년 9월부터 범패교육받아
“수행 과정이라 생각하고 수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음악의 세계에서는 국적이 따로 없습니다. 범패 연구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소리를 알려나가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범패전승기관인 옥천범음대학. 신촌 봉원사에 자리한 옥천범음대학 강습실에서는 머리를 파르라니 깎은 한 청년이 스님들 사이에서 바라춤을 추고 있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을 어딘가 닮아 보이는 이 청년은 바로 도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일중 씨(41 · 사진)였다.

어색한 모습이지만 눈에서는 범패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빛났다. 김 씨(41)는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음대에서 인류음악학 전공자로 박사과정을 수료 후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그가 옥천범음대에서 범패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씨는 “서울대 있을 때 국악 관현악곡을 써서 국악협회 관현악 축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적이 있는데, 그 때 쓴 곡이 봉원사가 위치한 안산과 연계된 ‘안산 자락의 소나무 한그루’ 였다. 2006년 경 송암스님의 범패 소리에 영감을 받아 작곡을 하면서 불교음악과 범패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게 됐다”고 인연담을 전했다.

김 씨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국악작곡을 전공했다. 중앙대 국악과를 거쳐 서울대에서 국악을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밟았다. 어려서부터 유불도에 능통한 도올 김용옥 선생에 영향을 받은 김 씨는 연세대 중문과 교수인 어머니 최영애 교수와 함께 신촌 봉원사 밑에서 자랐기에 범패와 인연이 닿은 것은 필연적이었다. 옥천범음대학 교학처장인 경제 스님과는 동네 친구사이였다.



김 씨는 “아버님으로부터 어려서 불교에 관한 얘기를 들어 관심이 많았다. 집에서 산책할 때 봉원사를 거치면서 보곤 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범패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그가 영화음악과 음악인류학을 전공하면서 부터였다. 김 씨는 또 다른 석사과정으로 뉴욕에서 2년간 영화음악을 전공했다. 당시 세계음악을 각각의 문화적 배경에서 연구하는 에트넘뮤지컬로지(ethnomusicology)에 천착하며 범패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김 씨는 “서양의 클래식보다는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소리는 무엇일까 관심이 있었고 K팝 등이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각광을 받으며 역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소리, 음악문화 배경을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범패를 배운 김 씨는 “공부를 하면서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한국음악에 대한 자기반성도 하게 된다”며 “속가친구인 경제 스님이 권하여 배우게 됐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그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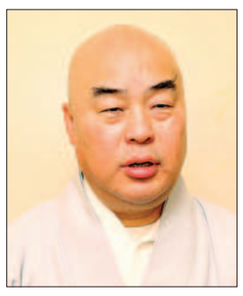
이어 김 씨는 “해외에 에트넘뮤지컬로지 차원에서 소개된 범패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1970년대에 나온 것이 유일무이하다시피하다. 현시대에 맞는 연구와 변화양상을 함께 살펴 논문을 낼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문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교본 등으로 배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 씨는 의지로 이를 극복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 도올 김용옥 선생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2월이면 캐나다로 돌아가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돌입한다는 김 씨. 바라를 양손에 든 김 씨의 모습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범패를 배우고 이를 설행하고 전수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행의 과정에서 신심도 자연스럽게 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새로운 경험이고 또 다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음악계에 범패의 가치를 새롭게 알려가겠습니다.”

천태종 제17대 종의회 의장에 무원 스님

1월 20일 원구성 후 임시 종의회
부의장은 덕해 스님 · 황세열 의원



천태종 제17대 종의회 의장에 무원 스님〈사진〉, 부의장에는 덕해 스님과 황세열 재가 의원이 선출됐다. 제17대 종의회 의원 30명은 1월 20일 도용 종정 예하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제113차 임시종의회를 열어 의장에 무원 스님, 부의장에는 덕해 스님과 황세열 재가의원, 총무분과위원장에는 설혜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는 석용 스님, 재무분과위원장에는 갈지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 무원 스님을 비롯한 종의회 의장단,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총무분과 최병열, 법제분과 김장욱, 재무분과 정찬영)는 1월 25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서 열린 동안거 해제식에서 사령장을 받았다. 제17대 종의회 의원은 비구스님 14명 · 비구니스님 3명 · 재가불자 13명으로 구성됐다.

종의회의장으로 선출된 무원 스님은 “상월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고,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무원 스님은 “종정 예하와 원로스님, 도반은 물론 사부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직무를 해나가겠다”며 “종단의 위상 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코로나에도 학구열… 익산 불자 학업 성취

이리불교대학 30기 졸업식 개최

익산지역 유일의 신도전문 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이 30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1월 24일 익산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이경례 씨 등 16명의 불자들이 1년 과정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 신도품계를 수지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졸업생과 송동기 부학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졸업식은 삼귀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시상, 학장식사, 축사, 졸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학인에 대한 시상도 이어져 포교원장상은 이경례 씨, 17교구본사 주지상에는 이점남 씨, 학장상은 강계순, 임소형, 허복주, 조동례 씨, 익산사암연합회장상은 이병윤, 고미해 씨 등이 수상했다.

덕림 스님은 졸업사를 통해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정진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에서 구국 애민에 나선 만암 스님을 기리는 다례재가 1월 27일 열렸다.

구국 애민의 선사 정신 기려

백양사 만암스님 64주기 다례재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탈당해 국권을 빼앗기자 만암 스님은 백양사에 광성의숙을 세워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쳤다. 그리고 스님들의 운력에 나서 피폐해진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농사와 양봉, 죽세공품, 숯굽기 등으로 사찰 대중과 주변 마을 사람들을 살렸다.

스님의 구국(救國)과 애민(愛民)정신은 중앙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학교), 정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훗날 금호고속, 전남방직의 모태가 되는 전남여객버스, 전남베어링 공장 등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월 27일 백양사(주지 무공)에서 만암대종사(1875~1957)의 열반 64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다례재에는 백양사 원로인 성오 스님, 명공 스님과 수좌 일수 스님, 진우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무공 스님을 비롯해 문도들이 참여해 대웅전 상단불공과 축원, 행장소개, 주지 인사말, 조사전 다례재가 봉행돼 만암 스님의 깊은 뜻을 기렸다.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조촐하게 다례재를 봉행하게 되어 여러 대중스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만암 큰스님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수 스님은 행장소개를 통해 “반농반선을 강조하며 매일 공동운력을 통해 ‘선불장’ 이란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공장과 회사설립은 물론 인근 주민들을 위해 일거리를 만들어 구호에도 남다르셨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 일광사 ‘자비의 백미나눔’ 귀감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와 일광사 연꽃신도회(회장 유상분)가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회 불자들은 1월 28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00포를 전달 전달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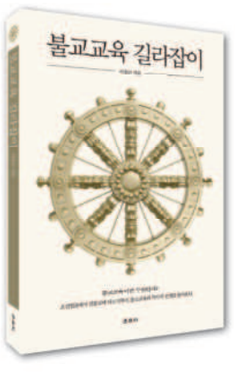
이날 전달식에는 승천 스님을 비롯해 군산 염불사 주지 행담 스님, 광법사 주지 명각 스님, 군산 도안사 주지 명현 스님 등 스님들과 유진섭 정읍시장 등 정읍시 복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승천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불자들의 마음이 담긴 쌀을 받고 더불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오랜 기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일광사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회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교육이란 무엇인가? 지금 왜 불교교육인가?
불교교육 길라잡이



초전법륜에서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교육의 전개과정과 특성, 의미 등을 고찰!

이송곤 지음/신국판/268쪽
값 16,000원

금강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금강경, 연기법으로 보아야 제대로 읽힌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은 금강경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

백창우 지음/국판/184쪽
값 12,000원

무엇이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가?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미국 미네소타대학 홍창성 교수가 현대철학의 관점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펼쳐 보인다!

홍창성 지음/국판/216쪽
값 12,000원

감산대사의 유려하고 명료한 해설!
감산의 기신론직해



기신론의 핵심을 알기 쉽게, 특히 초심자를 위하여 문답 형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감산덕청 해설/윤현로 역주/신국판/양장
400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찬불가, 혼자 집에서 즐겁게 연습해요

日 전통 찬불가 '고에이카(御詠歌)' 앱 출시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의 가르침을 시조로 만들어 노래하는 일본의 전통 찬불가 '고에이카(御詠歌)'를 혼자서 연습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개발처는 일본 임제종의 대본산인 묘신지(妙心寺). 본산이 나서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특별한 소식을 '교토신문', '마이도나 뉴스' 등의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묘신지 측에서 공개한 고에이카 앱(스마트폰 화면)과 기존 고에이카 보조도구.
사진출처=교토신문

고에이카(御詠歌)는 중세부터 전해오는 일본의 전통 찬불가로, 한시 혹은 일본의 전통 시조로 된 가사를 요령과 징으로 박자를 맞춰가며 부르는 노래이다. 문맹률이 높았던 중세에 노래로 된 고에이카는 서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었고, 예불을 대신해 대중이 함께 부르는 전통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고에이카는 각 종단과 본산별로 다양한 유파가 있어 종단의 중요한 행사나 법요에서 반드시 음성공양의 일환으로 불리우고 있다. 묘신지의 고에이카는 하나조노(花園)류라고 불리며 1924년경 도쿄에서 활동하던 이와타 덴마 스님 부부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창시된 것으로 전한다.

고에이카는 지금까지 각 사찰의 주지스님, 혹은 고에이카 사범이 자신의 소속사찰에서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식으로 전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는 지도자들의 고령화와 이수희망자의 감소로, 현재 하나조노류 고에이카의 회원은 전성기의 절반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묘신지 측은 이런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하게 고에이카를 즐길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2년 전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해 왔다. 묘신지 측은 "이미 기존에 사범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지만,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응용하여 혼자서 고에이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찰에 신도들이 모두 모여서 전수가 진행되던 기존의 교육방법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엔 임제종 묘신지파에서 주로 불리는 50여 곡의 리듬과 음계를 짚어주고, 혼자 연습하기에 편하도록 반주곡이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에이카 전수가 사찰과 신도 간의 결속력과 개인의 신행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오히려 신도들이 사찰에 올 수 있는 계기를 없애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조노류 고에이카 본부 측은 "애플리케이션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금 모두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며 사범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까르마빠, 재난소멸 온라인 기도 봉행

온라인 '까규 몬람', 전세계 신도 함께해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지도자인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르제(37)가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을 소멸하기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봉행했다. 지난 1월 20일, 까르마빠 공식사무국은 공식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8일간의 기도회를 알렸다.

까규파는 원래 매년 초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까르마빠의 주재하에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기원법회인 '까규 몬람'을 봉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부대중이 모이기 어려운 것에 따라 '온라인 까규 몬람'을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코로나19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인재를 소멸하기 위한 기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도의 주제 역시 '역경의 종식을 위한 대기원법회'로 정해졌다.

이번 온라인 기도회에 맞춰 까르마빠 공식사무국은 특별히 제작된 기도집을 전자책 형태로 무료 공개했다. 티베트어를 포함해 3개 국어로 제작된 기도집의 내용은 까르마빠가 직접 선택하고 편집한 것으로 전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기도를 인도하는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르제.
사진출처=까르마빠 공식사무국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된 기도는 까르마빠의 짧은 법문을 시작으로 대중들이 함께 기도문을 독송하는 방식으로 봉행됐다. 까르마빠의 법문과 기도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으며, 특히 페이스북 중계에는 한국어 통역이 함께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17대 까르마빠는 기도회를 시작한 첫날 "풀 한 줄기는 풀 한 다발보다 약하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기원과 열망이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합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굳게 믿는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힘과 장점이 있다"며 대중이 함께 같은 목적으로 기도하는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여러 재난으로 힘든 현재에 대하여 "지난 2020년은 전세계에 모두 힘든 한해였다. 그러나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인내, 용기, 희망,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역경을 새로운 길로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역경에 고개를 숙일지, 혹은 직면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한 모든 기도에서 "모든 기도에는 일체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선한 동기가 함께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경〉을 독송한 넷째 날, 까르마빠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신체적 안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마음에 행복감이 없는 큰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사여래의 대서원과 가피의 힘으로 자타의 몸과 마음의 병을 없애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증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모두가 힘을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또 까르마빠는 "〈약사경〉은 약과 치료법을 보여주는 글이 아니다. 그러나 약사여래께서 중생들을 치유하기 위해 크나큰 서원을 세우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서원의 힘이 마음에 미치고, 선업을 수행하려는 용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를 수행정진하는 기회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 까규 몬람은 27일 백산개불모와 마리지천, 사면불모(獅面佛母) 기도와 질병치유기도문으로 회향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러시아 최초 불교대학, 자생시도 관심

'타시 초코르 링' 사원, 현대교육과 전통교육의 공존

러시아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강원체계의 승가교육이 현대고등교육의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1월 25일 온라인 불교 전문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러시아 최초의 불교 대학인 '타시 초코르 링(Tashi Chokhor Ling)' 불교대학을 보도했다.

'타시 초코르 링' 불교대학은 시베리아 바이칼호 동쪽에 위치한 부리야트 공화국에 소재하고 있다. 몽골계 유목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시베리아는 이미 중세에 티베트 불교가 전해졌으며, 제정 러시아 시기엔 티베트와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맺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불교사원이 건립되기도 했다.

'타시 초코르 링'은 부리야트 승가의 본산인 이볼긴스키 다찬의 부속 강원으로 공산혁명 이전에 건립되었으나 소련정부의 박해로 한때 폐쇄됐고, 1970년대에 다시 종교 활동이 부활했다. 이 곳은 18세기에 시베리아 출신의 불교 지도자로는 최초로 티베트에서 전통적인 강원체계를 모두 마쳤던 캄보라마 담바 다르샤지에프 스님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타시 초코르 링' 사원은 1970년대 재건되면서 전통적인 강원체계를 복원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 불자들의 관심과 교학적 연구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지난 1999년 러시아 정부의 인가를 받아 러시아 최초의 불교 전문대학으로 개교했다.



타시 초코르 링 불교대학 전경.
사진출처=얀덱스

현재 이곳에선 현대적인 학위체계와 전통적인 법계체계를 혼합하여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답게 불교철학 뿐만 아니라 종교의례, 불교미술, 의학 등의 불교관련 학문도 교육되고 있다. 현재 '타시 초코르 링'의 목표는 현대 러시아에서 그간 단절되었던 불교와 아시아의 학문적 전통을 부활하고, 쇠퇴한 부리야트 승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역시 이곳의 교육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으며, 인도에 재건된 망명 티베트 불교 사원들과 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대학은 몽골의 간단사원, 부랴트 주립대학 등 국내외 많은 불교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러시아 불교학의 새로운 지명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오랫동안 끊겼던 법등이 어떻게 되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조동종, 美의회 난입에 성명 발표

폭력과 백인우월주의 강력비판

美조동종 선불교협회(이하 SZBA)는 1월 6일, 친(親)트럼프 시위대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1월 18일 불교 전문매체 '라이언스 로어'는 SZBA의 성명서를 특별 보도했다.

1월 6일 친트럼프 시위대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의회의 인증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 폭력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사상자가 나오고 미국 의회가 쑥대밭이 됐다. 이에 대해 SZBA는 "이번 시위는 폭력과 백인 우월주의가 깊이 결부되어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SZBA 협회장인 소산 테레사 플린 스님은 협회 이사진과 주요 간부들이 서명한 이번 성명서를 통해 "백인우월주의는 분명 미국의 건국원리였으며, 이 국가가 운영하는 위계적 조건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차별은 우리 사회 속 공업(共業)의 한 부분으로서 남아있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SZBA는 시위대 중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과 나치 깃발, 복장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 "우리는 이미 지난 여름 흑인 인권 시위와 시위대에 가해진 수많은 폭력과 혐오를 보았고 이것은 우리사회 미래에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까지 이어졌다"며 비판했다.

SZBA측은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불교는 우리에게 치유와 해방의 가능성을 알린다. 각종 차별이 관행으로 자리해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인정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의 마음 속에 자비가 살아 있고, 진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굳게 인지하고 진정한 자유를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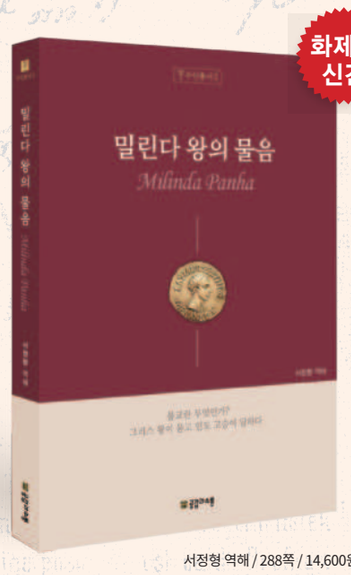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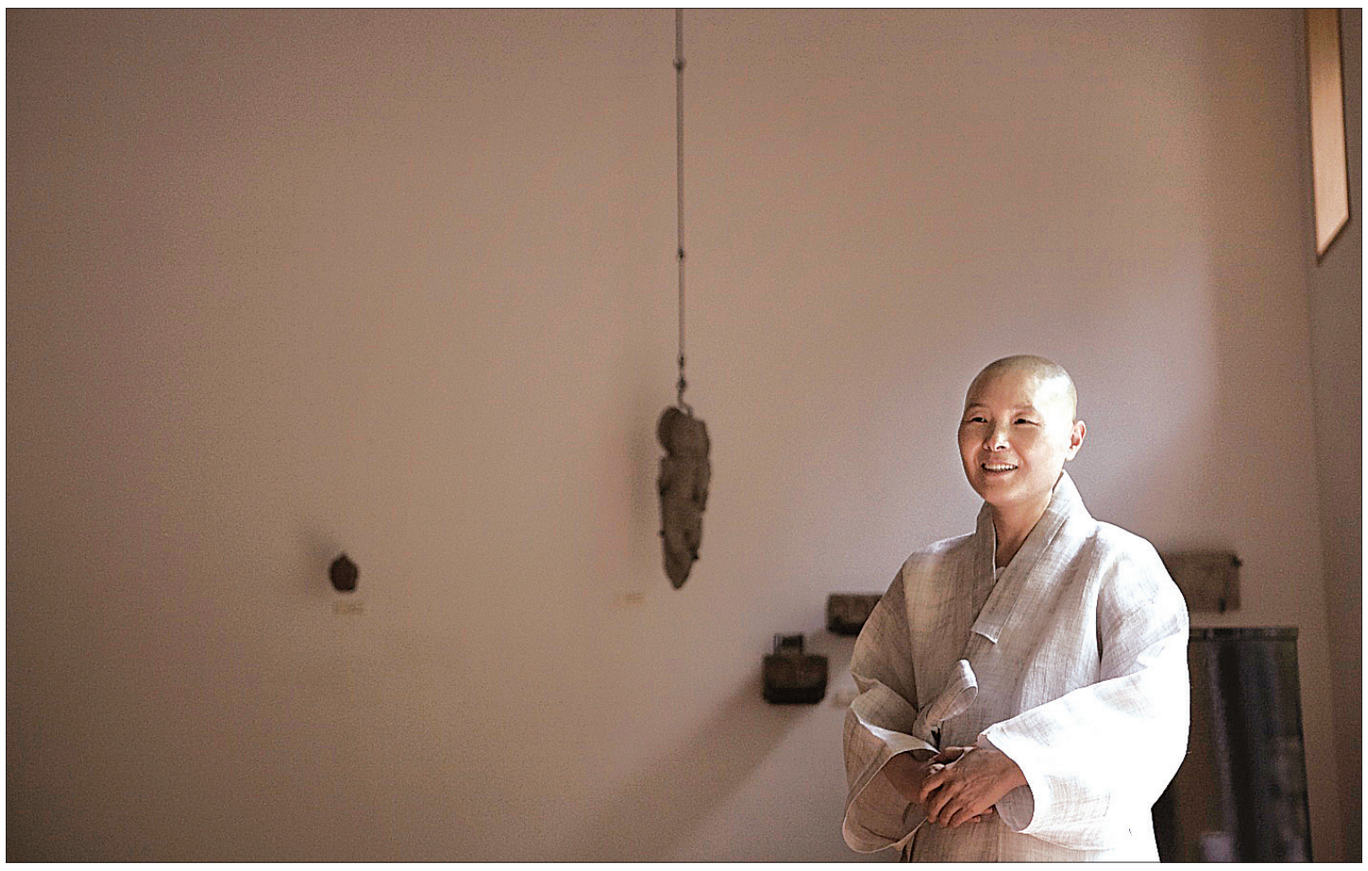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

코로나로 지친 국민 치유 글로 어루만져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스님 지음
모네의 정원 펴냄/1만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정목 스님은…서울 삼선동 정각사 주지이며, 불교계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방송인이다. 저서로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비울수록 가득하네> 등이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라디오방송 비구니DJ. 대표적인 비구니 힐링 포교사 등의 키워드를 주면 많은 불자들이 정목 스님이라고 답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열여섯 살, 삶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출가를 감행한 작은 소녀는 40년이 훌쩍 지나 이제는 '소외된 이들의 어머니' '우리 시대의 힐링멘토' '위로와 치유의 대명사' 등으로 불리며 어느덧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이 되었다.

고통은 줄어들고 사랑은 늘어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해온 스님은 소외된 사람을 위한 전화상담기관인 '자비의 전화' 를 만들었고, 1997년에는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 을 만들어 현재까지 치료비가 부족한 아픈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을 돕는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제 스님은 회갑을 넘긴 나이가 되어 스스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더 지혜로워지며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정목 스님은 수행자로서 끝없는 정진의 길을 걸어온 한편 치열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대중과 뜨겁게 호흡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해 주었다.

지친 사람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스님, 다른 어른들도 안아 달라며 두루마기를 부여잡으면 품에 안고 토닥거리며 '지금껏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스님. 사람들은 이런 정목 스님에게 엄마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세상과 이별해야 될 순간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며 산다는 정목 스님은 몰래 통기타를 들고 군포교를 하러 다녔을 정도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앞서 가는 비구니였다. 특히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스님의 목소리는 세파에 다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목소리로 종교를 초월해 각계각층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번에 스님의 에세이집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에는 바람처럼 가버린 스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정목 스님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신선하고 따뜻한 감동을 준다.

출가하던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써 낸 에세이 '출가하던 날'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명랑하고 낙천적인 스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출가하던 날 들뜬 마음을 스님은 이렇게 묘사한다.

"그때 저는 학교와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갖고 있던 의문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무렵이었지요. 이윽고 삭발하기로 한 날 아침, 문중 어른 스님들이 오시고 절집은 가볍게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흰 종이를 깔아놓고, 가위와 삭도가 놓여 있는 상 앞에 함께 머리 깎을 사형과 둘이 나란히 앉자, 스님은 시범이라도 보이듯 가위로 어깨까지 내려온 제 머리를 툭툭 잘라내셨습니다. 삭-삭 머리카락 잘려나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그 머리카락이 하얀 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때 열여섯 살, 철없던 저는 들뜨기만 했습니다. 가위질하던 손을 멈추고 스님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말하거라. 머리 깎겠다는 저를 염려하는 눈빛으로 보시던 스님은 그렇게 마지막 기회라도 주시듯 말씀하셨지요. 돌이켜보면 그때까지 어린 아이인 저는 그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듬성듬성 머리가 다 잘려나간 마당에 그만두고 싶다고 어떻게 그만둘 수 있다는 건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출가해 60평생의 현재까지 스님은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출가한 것' 으로 꼽고 있다. 어릴때 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스님은 자비행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중앙대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전화상담 기관인 '자비의 전화' 개설
1997년부터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
출판수익금 전액 아픈어린이에 희사

정목 스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인 '작은 사랑' 행사도 1997년 이후 매년 2회씩 서울대 소아병동에 입원한 어린이 환자를 중심으로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는다. '작은 사랑' 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함께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의료진에 의하면 '작은 사랑' 은 재발한 어린이 환자 위주로 성금전달 대상을 선택하고 있으며, 신기한 일이지만 '작은 사랑' 의 도움을 받은 어린이들은 완치율이 높다고 한다.

매년 2회, 총 1억2천~5천만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 아픈 어린이를 돕는 정목 스님은 이번 책의 저자 수익금 역시 전액을 아픈 어린이 돕기에 희사할 예정으로, 이미 초판 인세 전액이 아픈 어린이 돕기 계좌에 입금된 상태다.

뛰어난 가르침과 덕 높은 스승이 곁에 있어도, 기도하기 좋은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져도 오래된 습관과 집착에 끌려 우리는 순간순간 미혹한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 한다.

병에 걸렸을 땐 병만 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돈이 없어 쪼들린 땐 돈만 생기면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갈등할 땐 이것만 해결되면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한다.

마음은 언제나 뭔가가 결핍되어 있어서 그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원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현재는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과거는 후회나 집착 때문에 잘 놓지를 못해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오히려 그때가 좋았지하며 어려웠던 시절을 미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한다.

대한민국 최초 라디오 방송 비구니 DJ
저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일 '출가'
"만족할수 없으면 행복할수 없다" 강조

그렇게 지금 여기, 현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 마음은 늘 결핍을 만든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만들고,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은 마음이 불만족을 만들어 두리번거리며 늘 행복을 찾기만 한다. 마음이 현재에 가 있지 못하고 오지 않을 미래에 가 있거나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에 가 있는 동안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핍을 바로 알아차려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지금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받들기 위해 기도하며, 지금 내게 찾아온 슬픔과 고통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기도하며, 그 슬픔과 고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말끔히 사라지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스님은 책에서 말한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칠순을 바라보거나 이미 칠순을 넘긴 사람들이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 이전투구하는 정치판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치판뿐 아니라 세상엔 그런 이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얻을수록 더 얻고 싶어 합니다. 재물뿐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지요. 교수는 학장이 되고 싶어 하고, 학장이 된 사람은 총장이 되고 싶어 하고, 총장이 된 사람은 또 장관이 되고 싶어 하더군요. 그들은 대중 앞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신의 명예를 속속들이 검증당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이란 천박한 것이고, 명예는 가치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돈이건 명예건 욕망을 통해 쌓아 올렸다면 다 천박한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돈 주고 상(賞)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상이 세속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건 한 편의 코미디 같아 웃음만 나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일 中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 역시 정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알고 싶었고 진리에 대한 갈증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불법을 전해야겠다는 의욕만 앞섰을 뿐 저 스스로 절절히 체험하지도 못한 것들을 마치 경전을 암송한 앵무새처럼 외고 다녔던 저는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뭔지 모르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스님, 기억하시는지요? 저 뜨락에 있는 분재를 방으로 가져와 곰팡이를 닦아 주거라. 그때 스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육안으로 보이는 흰 곰팡이만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일이 이제야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곰팡이를 닦으라는 스님 말씀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들만 열심히 닦아내던 저는 곰팡이와 나를 별개의 것으로 구별 짓고 있었습니다. 닦으라는 마음은 닦을 줄 모르고 그렇게 곰팡이밖에 볼 줄 몰랐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시절이 지나가고 나자 탁자 위에 놓인 과일을 보다가 홀연 무상無常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보름이 지나자 과일은 물기가 마르고 쪼그라들며 서서히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지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과일은 온몸으로 증명해보인 것입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하네 中에서〉

문서번호 (2021-01-18)

공 고

(분환신청 / 승려증갱신)

삼보에 귀의 하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 원효종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 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2017카합10083대한불교원효종종정직무대행, 2019비합3003,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결정, 대구고등법원2020라388임시종정선임결정), 2021년 1월 12일자로 이종윤(원호)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들의 위촉, 임명 또는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다 음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1월 ~ 4월** (※공고일 부터 3개월)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3월 2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佛畫 입은 웹툰, 여성을 말하다

주목할 만한 불교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단행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만날 수 있는 외전 '봄맞이'의 한 장면. 울고 있는 주인공 숙이의 진짜 이름 '해송'을 지장보살이 불러준다.

부처님께서 주신 이름 '해송'
남 동생에게 빼앗긴 주인공
고군분투 성찰·성장 스토리

불교 이미지·철학 활용한
주인공의 심리묘사 탁월해

'연꽃같은사람'을 지향하며
여성간의 연대·저항 강조

한 어머니가 꿈을 꿨다. 부처님 앞에 스님과 소년 '해송'이 나타났다. 스님은 말한다. "과거에 큰 죄를 진 아이인데 긴 시간 수행을 해 마침내 속죄를 하게 됐다." 그리고 해송을 데려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한다. 10달이 지나 태어난 아이는 남아가 아닌 여아였다. 시어머니는 그런 여아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뒤이어 태어난 남동생에게 '해송'이라는 이름을 쓰게 한다.

공명 작가의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도입부다. 작품은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해송'을 빼앗긴 주인공 숙이가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연대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공명 작가의 데뷔작으로 2019년 제1회 NC버프툰 글로벌웹툰 스타오디션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 후 같은 해 버프툰에서 연재를 시작했으며, 높은 몰입도와 독창적인 그림체로 화제를 모으며 단숨에 최고 인기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인기로 최근에는 단행본으로 편집돼 출간되기도 했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도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큰 주제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다.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빼앗긴 들'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였다면, 공명 작가의 웹툰에서 '빼앗긴 들'은 남동생에게 빼앗긴 숙이의 태명이다. 나아가 가부장제라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빼앗기고 희생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권리와 주체적인 삶이다.

여성서사로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특징은 어머니 세대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이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60년대로 주인공이 대학을 진학하는 1980년대까지 이어진다. 시대별로 변화하는 숙이의 일대기는 우리네 어머니의 이야기이자 현재 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숙이뿐만 아니라 권례(숙이 어머니)와 미자, 지민, 필남 그리고 가해 주체인 시어머니까지 모두 가부장제의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다. 이 같은 갈등의 기저에는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된 가부장제가 있다.

작품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여성들의 연대다. 대표적 관계가 주인공 숙이와 동급생 지민이다. 둘은 상황은 다르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한다. 하지만, 이내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한다.

치유의 공간 '지장전'

작품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저항하는 숙이와 주변 인물들의 갈등을 그린다. 인물간의 날선 갈등과 번뇌를 풀어내는 기저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다.



공명 작가의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표지.

숙이가 어머니와 함께 처음 사찰을 찾은 건 자신이 애지중지 키웠던 뽀뽀라는 닭이 할머니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고 동생 해송의 저녁 밥상으로 오르면서다. 숙이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닭목이 비틀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는 닭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숙이를 데리고 어머니는 사찰의 지장전을 찾는다. 참배를 마친 어머니는 숙이에게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거나 평생 굶주리거나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나지. 뽀뽀가 닭으로 잠깐 태어났을 때 너를 만난 건 지장보살님께서 뽀뽀에게 준 큰 축복"이라고 달래준다.

이후 숙이에게 지장전과 지장보살은 자신의 한을 토로하는 치유의 공간이자 대상이 된다. 때로는 지장보살을 보며 "구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며 울분을 토해내면서도 "저도 당신의 무릎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며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길 바란다.

시즌1의 막바지, 숙이는 큰 병을 앓게 되고 꿈에서 육환장을 든 스님(지장보살)을 만난다. "자신이 있는 곳이 지옥이며 돌아가지 않고 싶다"고 우는 숙이에게 스님은 말한다.

"지옥에 있는건 그들이다. 현재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찬 것이 곧 지옥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귀이며,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것이 축생이다. 비록 네 있는 곳이 지옥이라 할 지라도 사람은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한다."

지장보살을 현몽(現夢)한 숙이는 다짐한다. 스스로를 지옥에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바꿔 자신의 세상을 바꾸겠다고.

공명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장보살은 모든 지옥 중생이 구제되기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원력을 가진 분"이면서 "숙이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은 모두 지옥에 있다. 작품에서 이들을 구제하고 섭수하는 존재가 지장보살이며 숙이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조력해준다"고 밝혔다.

예토를 정토로 바꾸는 힘

현재 발간된 단행본에는 나오지 않지만 숙이를 변화시키는 사람 중 한 명이 지민이다. 시즌1 마지막화, 병을 털고 일어난 숙이는 지민을 찾고, 둘은 연지(蓮池)가 있는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지민이 숙이에게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청결하게 자라나는 꽃"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가꿔지며 자라는 꽃이 아니라 스스로 진흙을 이겨내는 연꽃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예토(穢土)라는 진흙 속에서 정토(淨土)라는 연꽃을 피워내는 원동력은 자신의 변화에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삶(隨處作主)이 자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자 주인공이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현재 버프툰에서 시즌3이 연재 중이며, 올해 말 총 120화 전후로 완결될 예정이다. 단행본 1권에는 연재 15화까지의 분량이 담겼다. 단행본에서는 단독 외전 '봄맞이'를 만나볼 수도 있다. 숙이가 엄마를 따라 쑥을 캐러 간 어느 봄날의 짧은 사건을 그렸는데 마지막 장면은 마치 한 폭의 불화 같다.

공명 작가에게 묻다


사진=박재완 기자

Q. 작품 구상은 어떻게 하게 됐나

A.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기획한 것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다. 여성 서사에 내가 좋아하는 불교 이야기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았다. 담당 지도교수님도 부처님과 태몽이라는 주제를 좋아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여러 웹툰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계속 고배를 마셨다. 다른 작품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계속 밀고 나가라"고 격려해 주셨다. 결국 2019년에 제1회 NC버프툰 글로벌웹툰스타오디션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작가로 데뷔했다.

Q. 작중 사찰명이 금산사다

A. 1화에 나오지만 작품 배경은 전북 전주다. 사실 외가가 전주인데, 외가에 가면 가족 모두 금산사를 찾아 참배한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마을의 사찰로 표현했다. 작품 내 사찰 일부 전각은 아차산 영화사다.

Q. 종교는 무엇인가

A. 무교다. 하지만 어머니가 불심이 돈독하시다.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서 사찰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사천왕상과 불보살상이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코끼리를 좋아하는데, 코끼리 그림이 사찰에 많았다. 이것을 보는 것도 좋았다. 아버지께서도 불교철학과 문화를 좋아하셔서 평소 강의를 많이 듣는다. 어린 저에게 싯다르타 태자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기도 했다.

Q. 불화를 보는 듯 하다. 불교미술을 배운 적 있나

A. 작가 지망생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탱화를 배워 볼 것을 권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미술을 배우지는 않았다. 대학에서는 만화를 전공했다. 대신 불교회화 도록들을 많이 참고했고, 교리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작품을 그릴 때는 컷이라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한다. 무한한 공간에서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혜석, 박생광 작가의 그림과 색채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다.

Q. 향후 작품 계획은

A. 나혜석 작가를 좋아해서 신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작품에도 불교를 함께 다루려고 한다.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 가지 고질병 등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전수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 '미디어 아트' 괘불탱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괘불, 승려 초상' 영상 공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왼쪽은 부석사 괘불을 미디어아트로 재현한 모습. 사진 오른쪽은 불교조각실에서 바라본 괘불 미디어아트. 12m 대형 부처님의 백호 광명이 관람객들을 비추고 있다.

부처님의 설법을 담아낸 대형불화 괘불이 생생하게 움직인다. 부처님의 백호(白毫) 광명이 관람객들에게 비춰진다. 한국만의 독특한 불화인 괘불이 3D 초대형 미디어아트로 재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오는 2월부터 괘불과 승려 초상을 주제로 한 디지털 영상을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1월 28일 밝혔다.

초대형 불교미디어아트 '첫 선'

공개된 디지털 영상이 상영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의 괘불 전시 공간이다. 괘불은 조선시대에 야외에서 불교 의식을 거행할 때 걸었던 대형 불화로, 다양한 불교 의식과 함께 오늘날까지 계승돼 한국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높이가 12.7m에 달하는 이 전시 공간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괘불이 전시돼 왔으나 전시가 끝나면 비어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괘불 전시 공간에 실제 괘불이 소개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새롭게 제작된 미디어아트로 괘불을 만나게 된다"면서 "높이 12m, 폭 6m의 6K 초대형 괘불 미디어아트를 상설전시관에 최초로 상영함으로써 디지털시대 박물관 관람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m의 괘불 전시 공간에
높이 12m, 폭 6m 크기로
미디어 아트 괘불 재현해

서산·신겸 진영 디지털화
관람객에게 이야기 건네고
고승들 서로 대화 '진풍경'

초대형 불교미디어아트는 110점 이상의 현전하는 괘불 가운데 서로 다른 형식을 보이는 3점의 괘불을 기반하여 제작됐다. 모본이 된 괘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부석사 괘불'을 비롯해 국보 제301호 '화엄사 괘불' 보물 제1270호 '은해사 괘불'이다.

세로로 긴 형태의 괘불을 미디어아트로 옮기기 위해 여러 영상 전문가와 제작 방향을 논의했다. 괘불의 투명하고 다채로운 색감을 재현하며 애니메이션과 3D모션그래픽을 가미해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재탄생시켰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관람객은 12m의 대형 스크린에 투사된 2D와 3D의 불교 세계를 보며 원작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압도적인 시각적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다"며 "개별 괘불에 대한 정보는 이번에 함께 제작한 미디어패널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옛 고승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기존 불교회화실 휴게공간에는 실제 과거에 존재했던 고승과 현재 관람객이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됐다. 실시간 인식 센서로 관람객이 다가오면 화면 속 승려 진영이 반응하며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고, 영상 속 승려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진다.

고승 진영 영상은 조선 불교 부흥의 중심인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과 불화승으로 활동한 신겸(信謙,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활동) 스님의 진영 2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움직이는 고승 진영을 제작하기 위해 원작을 바탕으로 3D 모델을 만들었고, 모션 캡쳐 기술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했다. 진영의 회화적인 느낌은 아트 텍스쳐 기법으로 위화감 없이 4K 모니터로 전달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아트디렉터로 김현석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윤정원 상명대 디지털만화영상전공 교수가 참여했으며, 제작사 ㈜지노드(대표 이재선)가 불교회화에 최신 CG기술을 융합시켰다. 디자인적 모션그래픽과 역동적인 카메라워크(Camerawork)를 가미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불교회화를 해석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교미디어아트를 제작했다.

불교회화실 영상은 상시 만나볼 수 있으며, 괘불 미디어아트는 매시간 30분 간격으로 상영된다. 단, 괘불전 개최 기간에는 상영되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영상 제작으로 불교미술의 아름다움과 생동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면서 "불교회화 영상을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불교회화가 가진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아가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난문화재 '선의취득' 조항 보완되나

유정주 의원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도난문화재라도 장물임을 모른 채 소유했다면 '선의취득'으로 인정해 몰수하지 않았던 현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도난문화재이지만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했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늘리는 법 개정도 이뤄진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4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25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그간 도난문화재의 선의취득 예외와 공소시효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요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10년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로 시효가 끝난 뒤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선의취득 조항 강화와 공소시효 확대는 모두 도난문화재 환수와 매매 방지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도난문화재는 불교 성보일 경우가 많다. 성보는 신앙과 예경의 대상으로 매매물이 아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문화재 도난 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갑사 대웅전·대곡사 범종루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26일 지정 예고
"17세기 건축양식 계승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예고된 갑사 대웅전(사진 왼쪽)과 대곡사 범종루(사진 오른쪽)의 모습.

17세기에 건립된 사찰 전각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충남도 유형문화재 '공주 갑사 대웅전', 경북도 유형문화재 '의성 대곡사 범종루' 등 3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공주 갑사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나이며, 건립연대는 17세기 초로 확인된다.

실제 갑사 대웅전은 17세기 전환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 정면 5칸, 옆면 3칸의 맞배집의 구성인데, 정면이 5칸이면서 맞배지붕을 한 사례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정면과 배면 공포의 형식이 동일하고, 기둥 간격이 정면 중앙 3칸이 12척, 측면과 나머지 주칸은 8척으로 나타나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간결하게 배치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갑사 대웅전은 17세기에 지어진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 형식을 공유하면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 〈대곡사 창건 전후 사적기〉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돼 17세기 중·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사이에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

대곡사 범종루는 정면 3칸, 옆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으로 기존에 남아 있는 누각 건축 중에서도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의 특징을 가진다.

대곡사 범종루의 특징은 '2단의 보'이다. 일반적으로 대들보는 단일부재로 사용되나 대곡사 범종루는 같은 크기의 부재가 2단으로 걸려 있다.

문화재청은 "대곡사 범종루는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공주 갑사 대웅전·의성 대곡사 범종루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출강 및 통신 2021학년도 30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0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1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

▶ **6회 예고**
다르마가 이발소에서 청소하는 것을 본 빵갈로바뜨사는 잔뜩 화가 나서 왕비를 찾아가 항의한다. 왕비는 빈두사라왕의 미움을 받을까봐 마지못해 심복인 이발사 여인을 불러 다르마에게 바로 이발을 바로 가르치도록 지시한다.



이발소에서의 수난

왕실 이발소는 궁중 정원 안의 별채 회랑 끝에 있었다. 옆에는 왕실 목욕탕도 있었다. 왕족들만 이용하는지 별채 출입구에는 보초병사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눈을 희번덕거렸다. 회랑 안쪽 창고에는 전단향나무 장작과 뿌리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장작은 물을 데울 때 군불로 사용하고, 뿌리는 가루로 만들어 전단향나무 향기를 내기 위해 세숫물과 목욕물에 뿌렸다. 보초병사는 궁녀를 보자마자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이발소 안에는 서너 명의 수드라 여인들이 이발을 하는 우두머리 이발사 여인을 거들고 있었다. 청동거울에 비친 사람이 다르마를 보기 위해 슬쩍 고개를 돌렸다. 왕족인 듯 위엄이 있어 보였다. 큰 눈과 코, 입이 위풍당당했다. 이발사 여인이 왕족의 이발을 끝낸 듯 마지막으로 빗을 들고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왕족이 의자에서 내려올 때까지 궁녀는 이발사 여인에게 다르마를 소개하지 못했다.

다르마는 이발소 안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15번째 왕비의 심복인 이발사는 다르마에게 눈도 주지 않았고 잡일을 하는 수드라 여인들은 슬쩍슬쩍 다르마를 보았다. 이윽고 왕족이 자신의 팔을 붙들고 안마를 하던 수드라 여인을 뿌리치고 의자에서 내려왔다. 왕족이 궁녀에게 물었다.

"여기서 일할 수드라인가?"

궁녀가 왕족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브라흐민입니다. 왕비가 될 여인인데 막내왕비님께서 이리 보냈습니다."

"브라흐민이 이발소에서 일한다고! 더구나 왕비가 될 여인이?"

왕족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수드라 여인들이 놀랐다. 그러나 이발사 여인은 별 일이 아니라는 듯 묘한 표정을 지었다. 왕족이 혀를 차며 한 마디 툭 던졌다.

"쯧쯧. 행운의 여신이 질투를 하고 있군!"

왕족이 이발소를 나가자 이발사 여인이 말했다.

"이발을 배우려면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럴게요."

이발사 여인 역시도 신분은 수드라였고 얼굴은 숯덩이처럼 유난히 검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이발소에서 안마 등 잡일을 하는 여인들 모두 검게 번들거리는 얼굴이었다. 그래서인지 다르마의 얼굴은 흙탕물에 하얀 연꽃이 피어난 듯 도드라졌다.

"오늘부터 이발소 안의 청소부터 하세요."

"빗자루는 어디 있는가요?"

"동료들에게 물어 보세요. 난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왕비가 될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지 반말은 하지 않았지만 태도는 거만했다. 잡일을 하는 가장 앳되게 보이는 수드라 소녀가 다르마에게 말했다.

"적응하면 좋아질 거예요. 여기 오면 비질청소와 수건빨래부터 한답니다."

수드라 소녀가 이발사 여인의 눈치를 흘끗흘끗 보면서 친절하게 말했다. 다르마는 수드라 여인들이 왠지 무서웠지만 가장 앳된 수드라 소녀의 말을 듣고는 다소 안심했다. 이발사 여인이 또 다시 퉁명스럽게 말했다.

"방금 왕족이 흘린 머리카락은 누가 쓸어야 하나요?"

다르마가 당황하자, 어린 수드라 소녀가 빗자루를 얼른 다르마에게 주었다. 그제야 다르마는 의자 옆에 뭉툭뭉툭 떨어진 왕족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긴장한 탓에 비질을 빨리하자 먼지가 일었다. 이발사 여인이 또 타박을 했다.

"물을 먼저 뿌리고 쓸어야죠. 누구더러 먼지를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질부터 빨리 하라고 하시니..."

이발사 여인이 대꾸하는 다르마를 잠시 노려보다가는 야릇한 미소를 흘리며 이발소를 나가버렸다. 잡일을 하는 수드라 여인들이 다르마에게 다가와 위로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신고식 치고는 부드러운 거예요."

잠시 휴식하는 시간인 듯 수드라 여인들이 우르르 나갔다. 다르마는 소리 나게 한숨을 쉬었다. 수드라 소녀와 둘만 남았다.

"모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발사 언니가 나가니 덩달아 나간 거죠."

"함께 나가서 쉬지 그래요."

"청소를 더 해야 하는 걸요.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발견되면 벌을 선답니다."

다르마가 비질을 시작하려 하자, 수드라 소녀가 빗자루를 빼앗다시피 했다.

"왕비님 되실 분이니 천한 일은 하지 마셔요."

"짬빠성 집에 있을 때 청소를 많이 해봤어요."

"집안청소야 천한 일이 아니지요. 집안이 깨끗해지니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수드라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에요."

"남의 이발을 멋지게 해주는 일이니 천한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하는 일이면 다 공덕을 쌓는 일이지요. 그러니 정성껏 해야 돼요."

"아름다운 락슈미 여신 같은 분! 저는 오늘부터 시종이 될래요."

다르마는 자신을 락슈미라고 부르는 수드라 소녀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다르마가 보기에는 수드라 소녀가 연꽃에 앉은 락슈미로 보였다. 비슈누의 배우자인 락슈미는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여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행운이 찾아오면 '락슈미가 그와 함께 있다.' 고 말하고 반대로 불행해지면 '락슈미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고 말했다.



그날 밤 다르마는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창고 같은 방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역하게 났고, 도마뱀이 천정에서 떨어지곤 했다. 락슈미 여신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아서 울컥 눈물이 나려고도 했다. 그러나 다르마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웅크린 채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짬빠성의 망고나무 동산과 성 밖의 에메랄드빛 호수가 떠올랐다. 짬빠까나무 숲이 감싼 고요한 호수에는 날갯죽지가 유난히 긴 흰 새가 너울너울 날았다.

'아, 내가 새라면 짬빠성 엄마에게 내 처지를 전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르마는 쪽잠을 자다가도 순찰 도는 병사의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다. 창문을 따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였다. 그러다가도 자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면 다시 눈을 감았다. 잠은 멀찌감치 달아났지만 억지로 눈은 감고 있었다. 다르마가 눈을 떴을 때는 문틈으로 햇빛이 스며들어왔다. 새벽이 강가강 너머로 물러갈 무렵에 깜빡 쪽잠을 잔 모양이었다. 이발소 어린 수드라 소녀가 잠을 깨웠다.

"왕비님, 일어나셔요."

마치 시종이 된 양 수드라 소녀가 문 밖에서 소리쳤다. 다르마는 헝클어진 머리를 주섬주섬 매만진 뒤 문을 열고 나갔다.

"오, 락슈미띳사여. 늦잠을 자버렸네요."

다르마는 수드라 소녀에게 아직 이름이 없었으므로 락슈미처럼 아름답고 몸이 사탕수수대처럼 말랐다고 해서 띳사라고 불렀다. 락슈미띳사가 말했다.

"수드라들이 아침을 먹는 식당이 있어요. 얼른 가서 먹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해요."

"난 밥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먹어야 해요. 그래야 견디니까요."

왕비가 될 사람이 이발소에서 일한다는 입담거리가 벌써 궁 안에 돈 듯했다. 공동식당으로 가보니 궁녀와 수드라들이 다르마가 구경거리라도 된 듯 쳐다보았다. 수드라들은 아침식사를 바닥에 앉아서 먹었다. 다르마는 따뜻한 짜빠티를 한 조각 먹는 둥 마는 둥했다. 락슈미띳사가 가져온 짜이를 한 잔 하고는 일어섰다.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 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비로소 다르마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온 사실을 절감했다. 다르마는 이발소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강가강이 보이는 정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강가강은 빠딸리뿌뜨라 외성 밖으로 포근하게 흐르고 있었다. 고향인 짬빠성으로 흘러가는 강가강이었다. 강가강을 보자 다르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다르마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엄마가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이나 쓸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빵갈로바뜨사 구루를 얼마나 원망하실까?'

락슈미띳사가 다르마 옆에 앉았다.

"왕비님, 저도 울적하면 강가강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강가강이 저를 위로해 주어요. 강가강은 저의 엄마 같아요."

"엄마는 외성에 사는가요?"

"저는 엄마를 몰라요. 갓난아기 때 길에 버려졌으니까요. 외성에 양부가 살고 있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궁중 이발소에서 일하게 돼서요."

멀리 보이는 강가강이 락슈미띳사에게 화답하듯 햇살에 반짝였다. 강가강은 다르마도 위로해 줄 것처럼 자애롭게 보였다. 아침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몸을 담그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기도했던 강가강이었다. 그러니 강가강은 다르마에게도 부모나 다름없었다.

"락슈미띳사여, 일어나야겠어. 늦으면 혼날 테니까."

"이발사 언니가 거만한 것은 빠빠왕비님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빠빠왕비님?"

"대왕님의 막내왕비님이죠. 젊고 아름답지만 성질이 못됐어요."

다르마는 락슈미띳사와 이야기하는 동안만큼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궁중 이발소에 갇히어 절망하면서 살 뻔했는데 락슈미띳사를 만난 사실이 그나마 행운이었다.

"오늘은 왕자님들이 이발하는 날이에요."

"날이 정해졌군요."

"네, 순서가 있어요. 대왕님, 왕족님, 왕자님 순이에요. 왕자님이 오실 때는 빵갈로빠뜨사 구루님도 함께 오실 때가 있답니다."

락슈미띳사는 이발소로 먼저 들어갔다.

"언니들이 왕비님에게 친절하다고 저를 나무랄 수 있으니 그래요."

락슈미띳사는 영민해서 눈치도 빨랐다. 가능하면 다르마를 편하게 해주려고 움직였다. 이발소에는 벌써 어린 왕자 한 명이 이발을 하고 있었다. 우두머리 이발사 여인이 가위질을 능숙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왕자의 머리를 다듬는 가위질 소리가 사각사각 이발소 안에 나직이 울려 퍼졌다. 수드라 여인들이 세숫물에 전단향나무 뿌리로 만든 가루를 뿌리고, 또 다른 여인은 왕자 옆에 서서 안마를 하려고 준비했다. 다르마는 얼른 빗자루를 들고 왕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갔다. 이발사 여인이 지시하기 전에 왕자의 머리카락을 쓸려고 했다. 락슈미띳사가 눈을 찡긋하며 응원했다.

오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오후 늦게 빵갈로바뜨사가 어린 왕자를 데리고 이발소에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는 돌변했다. 빵갈로바뜨사는 다르마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몹시 당황했다.

"다르마여, 이발을 배우러 왔지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오."

"구루시여, 이발을 배우려면 누구나 잡일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발소에서 먼지나 쓸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왕비가 되실 분이!"

잡일을 하던 수드라 여인들이 모두 놀라 벌을 서듯 빵갈로바뜨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발사 여인도 마지못해 빵갈로바뜨사 앞으로 와서 합장했다.

"왕비님에게 가서 항의해야겠소."

빵갈로바뜨사가 화가 난 채 이발소를 나가버렸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어린 왕자가 철없이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뛰더니 엉덩방아를 찧었다. 다른 수드라 여인들과 달리 이발사 여인은 아무 일 없는 듯 어린 왕자의 머리를 가위질하기 시작했다. 빵갈로바뜨사의 노기를 무시하는 태도였다. 락슈미띳사는 혼잣말로 "빠빠왕비님을 믿고 저러는 거겠지." 하고 중얼거렸다. 다르마는 좀 전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비질을 했다. 어린 왕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계속〉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❸ 설악도의의 사승관계



▶ 한줄 요약
서당 지장의 사법자로서 조계 혜능의 남종선법을 최초로 한국에 전승한 도의는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고 있다.

혜능 남종선법 최초로 전한 도의

도의(道義, 생몰 미상)는 현재 한국불교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선의 역사에서 도의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매우 크다. 우선 도의에 대한 호칭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 보면 도의(道議), 도의국사(道義國師), 도의선사(道義禪師), 원적(元寂), 원적도의(元寂道義), 원적(元寂禪師), 명적(明寂), 명적도의(明寂道義), 설악도의(雪嶽道義)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설악도의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제반 선종의 문헌을 보면 당대 및 오대의 경우는 선자를 표기하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그가 주석했던 지명과 더불어 법명으로 지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선의 경우라고 해도 송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지명을 대신한 법호와 더불어 법명으로 지칭되어가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신라의 도의는 활동했던 시대가 당대에 해당하고 또한 설악산에서 주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전통에 따르자면 설악도의가 되기 때문이다.

설악도의에 대한 문헌적인 자료로는 가지산문의 제3조 보조 체징(普照 體澄, 804~880)의 비문인 '장흥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문(884)'과 〈조당집(952)〉의 내용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그 행장은 다음과 같다.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의 원적선사(元寂禪師)는 서당 지장(西堂 智藏, 735~814)의 법을 계승하였다. 명주(오늘날 강릉)에서 살았는데, 선사의 휘는 도의(道義)이고, 속성은 왕(王)씨이며, 북한군(北漢郡) 출신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서로운 꿈을 꾸고 나서 상의하여 상서로운 꿈을 보면 반드시 성스러운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름 쯤 지나서 태기가 있음을 알았는데, 39개월 만에 낳았다. 그날 밤에 홀연히 기이한 스님이 석장을 짚고 문 앞에 이르러 말했다. "오늘 낳은 아이의 태를 강가의 언덕에 갖다 두시오." 말을 마치고 홀연히 사라졌다. 마침내 스님의 말을 따라서 아이의 태를 그곳에 묻었다. 순록들이 찾아와 지켜주었는데 해가 가도록 그만두지 않고 오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해치려는 기색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서로 인하여 법호를 명적(明寂)이라고 하였다. 당 건중 5년(784, 선덕왕 5년)에 한찬호(韓粲號)와 김양공(金讓恭) 등을 따라 바다를 건너 입당하였다. 곧장 오대산으로 가서 문수보살상에 예배를 드리자 허공에서 성스럽게 종소리가 산에 울이는 것을 들었고, 신령스러운 산새가 비상하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광부(廣府) 보단사(寶壇寺)에서 비로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에 조계에 도착하여 조계조사의 영당에 예배드리려고 하자 홀연히 영당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 세 번의 예배를 드리자 문이 이전처럼 그대로 닫혔다. 이어서 강서의 홍주 개원사로 가서 서당 지장의 처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승으로 모시면서 수행하여 의심을 해결하였다. 서당대사는 마치 돌 속에서 아름다운 옥을 주운 듯하고 조개 속에서 진주를 주운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정법안장을 전해준다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이에 도의(道義)라고 개명해주었다. 그로부터 두타행(頭陀行)을 하며 유행하다가 백장 회해(百丈 懷海, 749~814)에게 나아갔는데 서당의 처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이에 백장화상이 말했다. "강서종의 선맥을 모두 동국에서 온 승에게 맡긴다." 나머지 내용은 비문의 내용과 같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
中광부 보단사서 구족계를 받아
서당 · 백장 문하에서 모두 인가
제방 유행하며 여러스승께 참문



조계 혜능의 남종선법을 신라에 전한 도의국사 진영.

그리고 〈경덕전등록〉의 기록에 의하면 서당과 백장은 마조 도일(馬祖 道一) 문하의 이대사(二大士)로서 당시에 각립(角立)하였는데, 스승으로부터 각각 경은 서당 지장에게 흘러들어갔고 선은 백장 회해에게 흘러들어갔다(經入藏禪歸海)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설악도의는 이들 서당 지장과 백장 회해의 두 스승에게서 각각 인가(印可)를 받았다. 여기에서는 인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전후의 시절에 대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가는 그 이전에 당연히 깨침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깨친 경험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두 차례에 걸친 인가에서 각각의 깨침에 대한 인가였는가 아니면 한 번의 깨침의 경험에 대한 두 번의 인가였는가 하는 점은 논외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인가의 문제는 깨침에 대하여 일회성인가 다회성인가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깨쳤다는 경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깨침에 대한 한 번의 경험에 대하여 인가하는 것은 스승이 바뀔 때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악도의는 현재 조계종에서는 서당 지장의 사법자로서 조계 혜능의 남종선법을 최초로 한국에 전승한 사람으로 조계종의 종조로 확정되고 있는 점은 나름대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악도의의 사승관계에 대하여 보다 넓은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조계종의 상황에서 설악도의를 서당 지장의 사법제자로 간주하고 있는 이유는 두 차례 인가를 받은 사실을 두고 보자면 백장 회해를 참문하고 인가를 받은 것보다 서당지장을 먼저 참문하고 또한 먼저 인가를 받은 까닭에 근거한다. 서당과 백장이 입적한 연도는 814년으로 동일하지만 당시에 세수로 보면 서당은 80이고 백장의 66으로 서당이 백장보다 14세 연장자이다. 따라서 설악도의가 입당하여 몇 군데 성지를 참배한 이후에 스승으로 선지식을 찾을 즈음에는 이미 50세를 넘기고 있었던 연장자인 서당을 참문하는 것이 36세를 넘기고 있던 백장을 참문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서당이 백장의 사형이기도 하였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설악도의는 당나라에서 37년 남짓한 세월 동안 구도행각을 하는 과정에서 서당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 곧장 귀국하지 않고 다시 두타행으로 유행을 하면서 백장 회해에게 참문하여 서당의 문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았다. 그런 연후에도 다시 최소한 7년 남짓한 세월이 지난 이후 821년에 귀국하였다.

조계종에서 설악도의에 대하여 적어도 제일차적으로 사법했다는 의미를 중요시하는 까닭에 서당 지장의 법맥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현재 설악도의를 조계종의 종조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 곧 조계의 혈맥을 계승한 최초의 선자라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중국 선종의 역사에서는 백장 회해가 마조 도일의 법계를 정통으로 사법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종의 사법관계에서 정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므로 정통선자의 법을 계승했다고 간주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본다면 설악도의가 서당 지장의 사법자이면서 더불어 당나라 당시부터 정통으로 간주되고 있던 백장의 사법자임을 부각시켜두는 것도 설악도의의 정통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이런 경우와 관련된 일례는 선종사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

중국 조동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산 양개(洞山 良价, 807~869)의 스승인 운암 담성(雲巖 曇晟, 782~841)은 처음에 20여 년 동안 백장 회해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그 법을 계승했지만, 오히려 백장 회해의 친절한 배려심으로 인하여 이후에 약산 유엄(藥山 惟儼, 751~834)에게 참문하고 그 법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로써 운암 담성은 조계 혜능 · 청원 행사 · 약산 유엄 · 운암 담성으로 계승되는 법맥을 전승하게 되었다. 또한 당 말기부터 오대 초기에 형성된 중국의 선종오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위앙종의 경우에 앙산 혜적(仰山 慧寂, 807~883)은 남양 혜충(南陽 慧忠, 775 입적)의 제자인 탐원 응진(耽源 應眞)의 법을 계승하였지만 이후에 위산 영우(潙山 靈祐, 771~853)에게 참문하여 그 법맥을 계승하였다. 이로써 앙산 혜적은 남양 혜충 · 탐원 응진의 법맥으로부터 남악 회양 · 마조 도일 · 백장 회해 · 위산 영우 · 앙산 혜적으로 계승되어 위앙종의 조사법맥을 전승하게 되었다. 또한 임제 의현(臨濟 義玄, 867 입적)은 귀종 지상(歸宗 智常)의 제자인 고안 대우(高安 大愚)에게서 깨침을 인가받은 이후에 황벽 희운(黃檗 希運, 850 입적)의 문하에 돌아와서 그 법을 계승하였다. 이로써 백장 회해 · 황벽 희운 · 임제 의현으로 계승되어 임제종의 개조가 되어 이후에 전승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스승에게서 공부한 경우에 먼저 법을 계승한 스승의 법을 계승하지 않고 나중에 법을 계승한 스승의 법을 계승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전에 계승한 선법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무릇 정통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볼 경우에도 먼저 사승한 스승을 끝까지 계승한 경우도 부정되지는 있지만 더욱이 나중에 사승한 스승의 법을 계승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의 수증과 사법의 전통에 비추어보면 특별히 한 명의 선지식만 정해두고 공부하기보다는 제방을 유행하면서 여러 선지식의 가풍과 선기를 널리 다지면서 인연이 닿는 곳에 주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설악도의가 사승한 법맥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먼저 계승한 서당 지장의 법맥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연이 닿았던 백장 회해의 법맥을 더불어 계승한다고 간주할 경우에도 이들은 모두 조계 혜능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마조 도일의 홍주종(洪州宗) 가풍을 전승한 선자들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더욱이 수백 명의 납자를 거느리고 접화를 펼쳤던 백장의 법맥을 사승했다는 측면으로 보면 백장의 사상과 수증관을 정통으로 수록하고 있는 그 어록이 충실하게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맥을 전승한 설악도의의 사상과 수증관을 도출해내는 근거와 자료도 대단히 풍부해진다. 더불어 백장의 어록이라는 문헌적인 영역의 확보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조사선의 수증관을 크게 현창했던 홍주종 가풍, 그 가운데서도 백장 회해의 조사선 가풍에 보이는 수증관으로서 무수무증(無修無證) 내지 비심비불(非心非佛)의 사상적인 계보를 계승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보아도 설악도의의 사상의 단편에 대하여 보조 체징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도의의 무념(無念)과 무수(無修)의 수증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법맥의 상승이라는 점으로 보아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계승되었다는 증좌가 되기도 한다. 이로써 설악도의의 사승관계는 보다 확장될 뿐만 아니라 중국선종으로 계승된 조계종지의 정통법맥 내지 홍주종의 가풍을 고스란히 전승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동국대 HK교수〉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❸ 천의무봉한 디테일



▶ **한줄 요약**
〈수월관음도〉는 고려불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월관음의 천의를 적외선 촬영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고 복잡해 관련 일본학자들이 혀를 내둘렀다.

천의 문양에 보인 상서로운 기운

"모든 사람들은 무지와 애욕 때문에 미혹의 세계를 윤회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소멸해 버릴 것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대해 조금의 싫증도 내는 일 없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또 실제로 자아를 지니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아라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탐심 · 노여움 · 어리석음(탐 · 진 · 치)이라는 삼독(三毒, 세 가지 독)의 불꽃을 매일 태우면서 산다. 이런 상태이므로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다. 오직 맹목적으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따름이다."

유일한 의지처, '자각'의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직후,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이와 같았다. 맹목적으로 삶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유일한 의지처는 '자각' 뿐이다. 맹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허망한 대상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기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아는 순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스스로를 아는 자각의 마음을 각성(覺性, 깨닫는 성품)이라고 한다. 각성은 곧 불성(佛性)이다. 즉, 부처의 성품이다. 우리가 5분 알아차리고 있으면, 우리는 5분 동안 부처인 것이다.

우리를 포용하는 관음보살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사랑을 찾아 헤매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틱낫한 스님은 말한다. 우리는 항상 의지처를 찾는다. 그것이 명예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있지도 않는 자아이든, 공통점은 그것들은 항상 그렇게 있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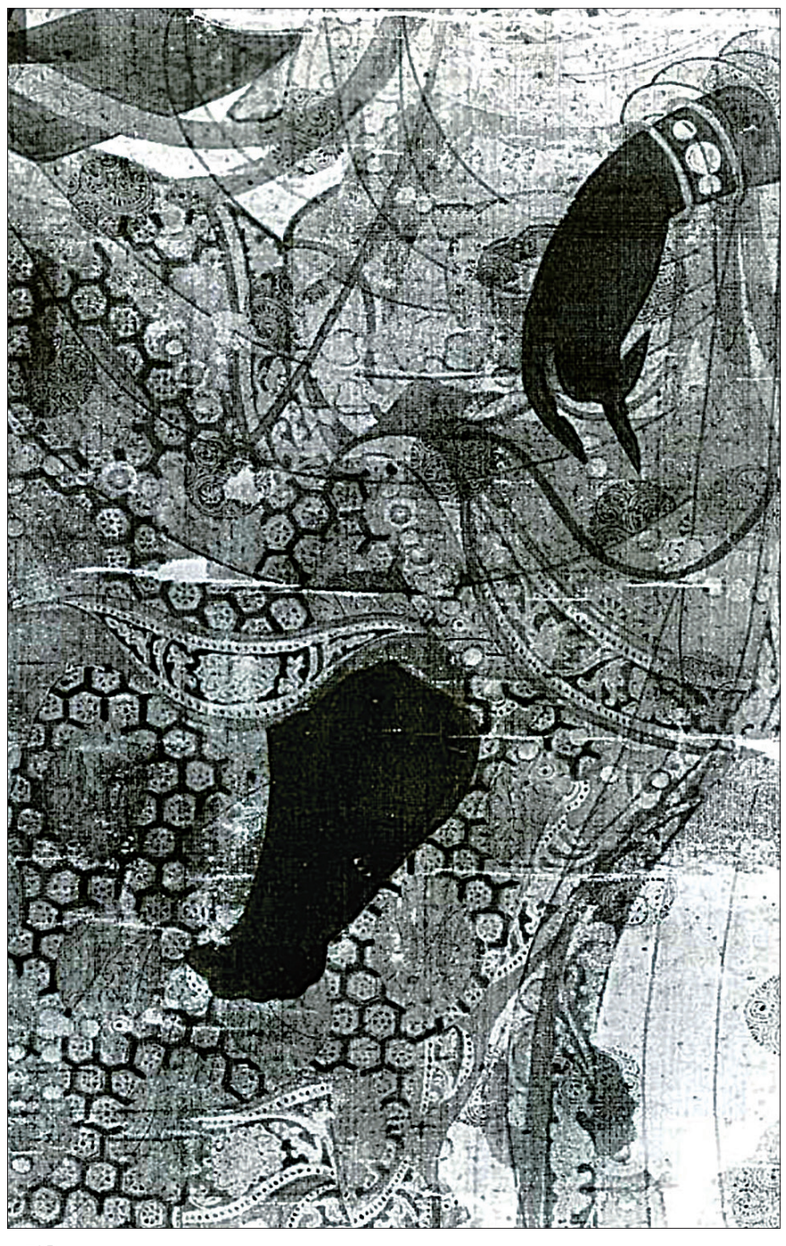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석가모니는 (위에 열거한) 그 어떤 관념도 아닌,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라' 고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께서도 일상적으로 하셨던 것이 이것이다. "저들(이교도들)이 너희 스승은 무슨 수행을 하며 일상을 보내냐고 묻거든, 들숨 날숨을 자각하는 수행을 한다고 전하여라"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신 바 있다. 들숨 날숨을 자각하는 것을 '아나빠나 삿띠' 라고 한다. 아나빠나 삿띠 수행의 대가이신 진경 스님은 "호흡을 아는 것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라"고 하셨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중생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들끓는 마음이 치성할 때, 우리는 '자비관' 을 한다. 꺼지지 않는 갈애의 불꽃을 포용하며 이를 녹여버리는 '자비' 의 위력, 이를 관음보살이라고 한다.

수월관음의 대표적 특징인 투명 그물 사라. 이는 관음보살이 뭇 중생들 위로 펼치는 '큰 광명의 그물(대광망, 大光網)' 이다. 그렇다면, 자비의 대광망의 기능은 무엇일까? "나는 큰 광명의 그물을 놓아 중생들을 온갖 뜨거운 번뇌에서 구제한다. 이로써 모든 중생을 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험한 길의 공포 · 뜨거운 번뇌의 공포 · 어리석음의 공포 · 결박의 공포 · 살해의 공포 · 가난함의 공포 · 살지 못할까 하는 공포 · 소송의 공포 · 대중의 공포 · 죽음의 공포 · 사악한 길의 공포 · 모든 행로의 공포 · 뜻이 같지 않은 공포 ·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공포 · 일체 악의 공포 · 몸을 핍박하는 공포 · 마음을 핍박하는 공포 · 근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화엄경 입법계품 中)"라고 한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하단 부분. 비단에 채색됐다. 일본 담산신사(談山神社) 소장돼 있다.

그림②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적외선 촬영한 모습(동경문화재연구소 제공). 일본 천승사(承天寺)에 소장돼 있다. 배채법을 사용한 몸체 부분인 손과 발은 검은색이지만 앞에서 그린 문양부분들은 세밀하고 아름답다.

應身으로서 수월 관음의 서기
천의內 다채로운 문양의 표현
적외선 촬영하니 디테일 확인
문양 세밀함에 日학자들 탄복

〈수월관음도〉 선풍적 인기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그려진 불화 주제는 〈수월관음도〉였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왕실 및 귀족층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월관음도〉를 주문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162점 중에 〈수월관음도〉는 45점으로, 다른 장르의 불화들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점유하고 있다.

비율로 보자면, 물론 아미타불 관련이 40%이고 수월관음도는 35%이지만, 아미타불 관련 주제의 불화는 아미타독존도 · 아미타삼존도 · 아미타내영도 등 다양한 형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독 장르로 치자면 당시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이 '수월관음도' 이다. 그래서 으레 '고려불화' 라 하면 곧 '수월관음도' 를 지칭할 만큼 고려불화의 대명사격이 되었다.

'수월(水月)' 이란, '물에 비친 달' 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물에 비친 달' 과 '관음보살' 은 무슨 관계이기에, '수월관음' 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졌을까? 여기서 달은 둥근 달, 보름달을 말한다. 물에 비친 달, 수월의 메타포는 〈화엄경〉의 '월인천강(月印千江)' 의 내용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월인천강' 이란 '한 개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친다' 는 뜻이다.

보살은 청정한 해와 달과도 같아/ 맑은 거울(皎鏡)이 허공에 있는 것 같네/ 그 그림자가 많은 강(衆水)에 나타나지만/물과 섞이는 바 되지 않네/ 보살의 청정한 교화의 법륜(法輪)/ 마땅히 깨달아 이와 같아/ 세상의 마음 연못(心水)에 나타나지만/ 세상과 섞이는 바 되지 않네.

즉, 맑은 거울과 같은 하나의 달이 그 그림자를 지상 수천 개 강에 나타내듯이, 한 분의 보살이 무수한 중생들의 마음에 투영되어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투영된 천 개의 달 그림자는 응신(應身, 중생의 요구에 응하여 나타나는 몸체로 이를 화신(化身)이라고도 함)을 말한다. 달이 있는 허공 바탕은 법신(法身)이고, 달은 보신(報身)이며, 물에 비친 달은 응신인 것이다. 관음보살은 보신이 응신한 것임을 말해준다. 응신으로서의 수월관음은 그 몸에 장엄한 서기(瑞氣,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데, 이 서기는 다채로운 문양들로 표현된다. 피어오르는 듯한 아름다운 문양들은 '보신이 응신으로 연기(緣起)'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그림①)

수월관음도 적외선 촬영해보니

이러한 다양한 문양 중첩(그림②)을 목격한 일본 학자들은 큰 충격에 싸였다. 1978년 야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에서 최초로 열린 〈고려불화〉 전시는 일본 학계에 커다란 경각심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화려한 디테일 때문이었다.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고려불화에 대한 적외선 촬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형광 촬영법까지 동원하여 최신 기술로 작품을 찍고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림②는 적외선 촬영을 한 것인데, 배채법(비단 바탕 뒤에서 칠하는 방법)을 사용한 몸체 부분인 손과 발은 빛이 투과하지 못하여 검은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앞에서 그린 부분들은 빛을 투과시켜 보니 세밀하고 복잡하기가 그지없다. 적외선 촬영으로 디테일이 드러나자, 그 안에 구사된 고난위도 기법과 교묘한 효과에 일본 학자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박원자의 母情佛心 ❸ 운문사 율주 일진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무서울 때에는 관세음보살을 찾아라"고 했던 운문사 율주 일진 스님의 어머니.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안심법문이었다.

"군밤 석 되에 싹이 나면 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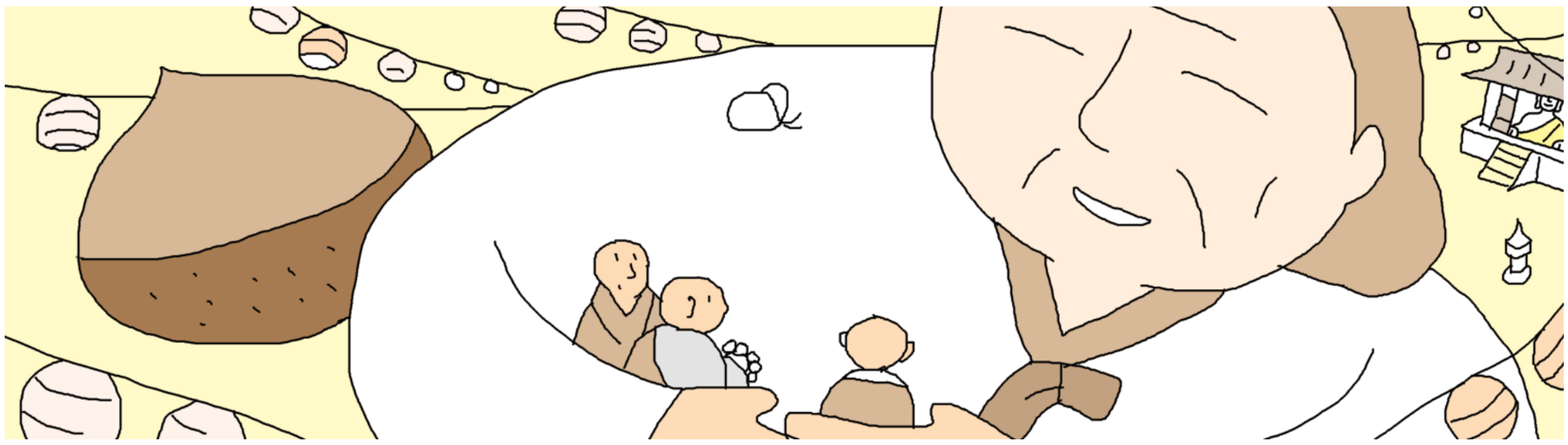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자식이 어릴 적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다닐 때 자식 생각이 났다. 그러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니, 가슴 속까지 후련해지는 강의를 듣거나 감동 깊은 책을 봤을 때 그들이 떠오른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공감할 때는 기쁨이 배가 된다.

누구나 경험했을 이 모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부처님 당시의 일이다. 파사익 왕과 그의 부인 말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고는 이웃나라 왕에게 시집간 딸, 승만을 떠올린다. 우리 딸과 함께 이 좋은 법문을 함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충분히 상상이 된다. 인류의 스승이 되신 부처님께서 설한 인생의 이치에 관한 법문을 들었을 테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당연히 자식도 그 기쁨을 맛보았으면 했을 것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 지혜로운 부부는 딸 승만이 보리심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그리고 궁녀를 통해 편지를 보낸다. 승만은 여래의 공덕을 찬탄한 부모님의 편지를 받고 바로 부처님께 귀의한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딸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깊은 마음을 내었고, 결과적으로 승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승경전, 〈승만경〉을 탄생시켰다.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다짐한 열 가지 발원(승만부인 십대원)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발원으로 이어졌으니, 실로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보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발원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이 열 가지만 실천한다면 진정한 어머니 보살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 열 가지 원을 간단하게 줄여 소개하면 이렇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계를 범하지 않겠으며,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화를 내지 않겠으며, 질투하지 않겠으며,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겠으며,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아낌없이 재물을 쓰겠으며, 보답을 바라거나 싫어하고 만족하는 마음 없이 중생을 거두겠으며,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외면함 없이 도와주어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으며, 청정한 계를 범하는 이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거둬들이겠으며, 정법을 받아들여 끝내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2600년의 세월이 흘러 한국의 한 비구니 스님이 〈승만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을 출간한 운문사 율주 일진 스님이다. 학인 시절부터〈승만경〉을 즐겨 읽었고, 출가해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인연 있는 불자들과 이 경전을 함께 공부하며 그들을 교화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순간순간 안녕하고 편안해지이다."

자식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하더라도 어머니가 흔들림 없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자식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믿음으로, 스님은 이렇게 발원하고 있다.

"무서울 땐 '관세음보살' 부르렴"
모친 전한 '안심법문' 출가 계기
"어머니, 수행자 안내한 선지식"

아주 오래 전 나는 일진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들었다. 한참 뒤 스님을 다시 뵈었을 때, 어머님의 안부를 물었다. '내 출가의 첫걸음은 어머니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어머니는 나를 수행자로 안내해 준 선지식이었다' 는 스님의 고백이 각인되어 있었고, 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행복해 보이는 이 아름다운 수행자를 낳아 기른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스님이 들려준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어머니는 마흔 살에 늦둥이 일진 스님을 낳았다. 1남 6녀의 막내였다. 어머니는 한 달에 두 번 서산 집 근처 팔봉산에 있는 암자에 올라갔다. 몇 대 독자인 아들을 위한 신성한 기도 때문이었다. 폭설이 내린 겨울 어느 날에는 호랑이가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 절에 올라가기도 했다. 부처님이 보호해주리라는 믿음으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고 했다. 그 곁에는 언제나 막내딸이 있었다. 바삭바삭하게 풀 먹인 광목 치마저고리에서는 언제나 풀 냄새가 났다. 지금까지 또렷하게 기억되는 어머니 냄새였다.

절에 가기 전, 정성을 다해 옷을 손질하고, 부처님께 올릴 떡을 만들던 그 신성한 몸짓이 곧 진정한 기도였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회하곤 한다. 오직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순수무잡한 그 간절한 마음이 불심의 자리 아닐까. 나는 자식을 위해서 저리도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를 해보았는지, '정성' 하나면 되는 것인데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다. 천둥번개가 몹시도 휘몰아쳤던 날, 먼 길을 걸어 쓰고 있던 우산마저 내던지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겁에 질린 막내딸을 꼭 품에 안으면서 어머니가 그랬다.

"무서울 때는 '관세음보살' 을 부르면 돼." 그때 어머니의 입에서 나왔던 그 포근한 느낌의 '관세음보살' 이라는 단어가 막내딸의 불심이 되어 가슴으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 뒤 무서울 때는 꼭 관세음보살을 불렀고, 그럴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다. 어머니가 선물한 '안심공부' 였다.

집 근처에 있던 서산 개심사에 자주 가셨던 어머니를 따라 다녔던 막내는 개심사 학인 스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설레곤 했다. 찰랑거리는 가사 장삼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스님들의 모습은 똑같이 아름다웠다. 무시로 가슴으로 스며들었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준 어머니였다. 개심사 스님들은 신심 깊은 어머니가 계신 집을 가끔 오셨고, 스님들이 오면 어머니는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해 올렸다. 이모처럼, 사촌처럼 가깝게 느껴졌던 스님들은 여섯이나 되는 따님들에게 '너는 내 상좌하자' 며 미소 지었다. 딸들의 가슴은 신심으로 물들었고, 그러는 사이 둘째와 다섯째 딸이 출가했다.

그리고 막내인 일진 스님은 초등학교 5학 때 출가를 결심했다. 서울로 유학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의 환갑날, 많은 식구들이 모였을 때 출가를 선언했다. 어머니는 든든해하며 말했다.

"그래, 언니 스님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한 남자를 만나 집을 떠나는 출가(出嫁)와 만인의 스승이 되는 길을 떠나는 출가(出家)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드님을 위해 신성에 가까울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첫 손자가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상심으로 인해 더 발심하셨던 것 같아요. 세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아셨을 테니 세 딸들의 출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겠죠."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칠십 여 년을 해로 했던 지아비를 보낸 늦가을 날 밤, 어머니는 막내 딸 스님과 하룻밤을 보냈다. 쇠약해진 여든여덟의 어머니는 동갑내기 지아비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듯 불안해보였다. 따뜻하게 어머니를 위로하는 스님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스님, 이제 또 가셔야 되남유?"

"저, 그럼 절에 가지 말까요?"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이왕 가셨는데 아주 가셔야지요."

스님은 그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진발심했다고 한다. 기왕 출가했으니 철저히 공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깊은 경책으로 들렸다는 것이다. 스님은 그날 밤, 어머니 머리맡에 입던 가사를 놓아두면서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잘 지내셔야 한다' 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어머니 곁을 떠나온 스님에게 얼마 후, 어머니가 곡기를 끊고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부모를 모셨던 아들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가셨으니 발 씻겨드리고 양말 빨 일 없지 않느냐.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이만 가련다."

딸 스님들이 모여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한다.

"추운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상을 치르느라 자손들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겨울 잘 나시고 내년 봄 개나리 꽃 필 때 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마음대로 되남유? 옛날에 어떤 사람은 갈 때가 되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짐승에게 주었다는 군요, 그렇게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어유."

두런두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어머니에게 막내딸 스님이 물었다.

"아유, 그렇게 가셨다가 언제 오시려고요?"

"군밤 석 되에 싹이 나면 오지유."

다시는 윤회하지 않으리라 선언한 것이다. 세 따님을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 만인의 스승이 되게 한 어머니다운 선언이었다. 한 자식 출가에 구족이 승천한다고 했으니, 스님의 어머니는 영원히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셨으리라. 그 해 겨울, 둘째 딸 스님이 도반과 함께 동안거를 어머니 곁에서 났다. 마치 은사 스님을 시봉하듯 틀니를 닦아 드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만들어 올렸다. 운문사에서 강의를 하던 일진 스님도 짬을 내어 자주 어머니가 계신 대전 집을 오가며 어머니의 염불 정진을 도왔다.

수행자 따님들의 당부대로 어머니는 다음해 개나리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던 봄날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났다. 일진 스님이 운문사 강사를 오래 한 덕에 장례식에는 운문사 강원 졸업생 스님들이 모두 와서 염불을 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청아한 염불소리를 들으며 스님의 어머니는 본래면목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리라.

"출가해서 독신으로 수행한다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만 할까요? 열여섯에 결혼해서 여든아홉에 가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바세계의 길을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한 길로 가신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바세계에 오셔서 어머니는 할 일을 다 하고 가셨죠."

오랜 세월 강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교화하고 있는 일진 스님께 진정한 어머니 역할에 대해 물었다.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정말 주인공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웃으며 살 수 있죠. 웃으며 살아야 웃으며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품어내는 것이 어머니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품어내는 대지와 같은 모성을 지닌 어머니가 이 풍진 세상을 살아내는 진정한 보살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다. 스님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작가〉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때가 되어야 들을 수 있는 법문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⑤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사리불아,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 그 뜻이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법을 연설하시지만,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아시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들은 오직 '일대사인연으로(一大事因緣)' 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어째서 부처님 세존들은 오직 일대사인연으로써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하면, 부처님 세존들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열어(開) 청정하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려고(示)하는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悟) 하려는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이 부처님 지견의 도에 들어오게(入) 하려는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불아,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일대사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어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 여래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 항상 한 가지 일을 위하는 것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견으로써 중생들에게 보이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라. 사리불아, 여래는 다만 일불승(一佛乘) 때문에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할 뿐이요, 다른 이승(二乘)이나 삼승(三乘)은 없느니라. 사리불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그러하니라."

〈방편품〉에 설해져 있는 이 대목은 부처님이 왜 중생 세계에 오셨는가 하는 그 근본 이유를 밝힌 말이다. 일대사인연이란 가장 중대한 일을 해야 할 인연이라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큰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생들에게 불지견(佛知見)을 열어(開), 보여주고(示), 깨닫게 하고(悟), 들어오게(入)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법화경〉의 핵심 개념이라 한다. 불지견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알고 보는 것을 말하는데, 천태 지의(天台 智顗, 538~597)는 〈법화문구〉에서 부처님이 일체종지(一切種智)로 아시고 불안(佛眼)으로 보는 것을 불지견(佛知見)이라 한다 하였다. 중생의 망상분별이 없어져 식(識)이 지혜(智)로 바뀌진 전식위지(轉識成智)의 경지에서 알고 보는 것이다.

전오식(前五識)이 바뀌어 성소작지(成所作智)가 되어 오관(五官)을 통해 자리이타 하는 업을 짓는 지혜가 이루어지고, 육식(六識)을 묘관찰지(妙觀察智)로 바꾸어 제법의 행상을 신묘하게 관찰하고 정(正)과 사(邪)를 구별하여 남을 교화하여 의혹을 끊게 해주며, 칠식(七識)을 바꾸어 평등성지(平等性智)를 이루어 일체 현상의 차별을 뛰어넘어 피차가 평등한 것이라고 관찰하며, 제8아뢰야식(阿賴耶識)을 바꾸어 대원경지(大圓鏡智)를 이루어 삼라만상이 모두 분별이 없는 지혜의 모습이라 원만 구족한 일법계(一法界)임을 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를 성취해 나가 구경의 일승(一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법화법문이다. 〈법화경〉의 대의가 삼승법(三乘法)을 회통하여 일승에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이승(二乘)들을 부정하여 평가절하하는 말이 경문에 직접 나온다. 성문이나 연각은 〈법화경〉의 법문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승들도 〈법화경〉을 지녀야 부처님의 참 법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사리불의 청에 의하여 부처님이 마지못해 법화법문을 설하기 시작할 때 사부대중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간다. 부처님은 말리지 아니하고 사리불에게 저런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화법문은 때가 되어야 설하는 법문이라 하였다.

"사리불아, 이 미묘한 법은 여래가 때가 되어야 설해주는 법문이니 우담발화(優曇鉢華)가 때가 되어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은 〈법화경〉이 보살을 가르치는 법을 설한 경이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융통성 발휘한 실천, 分受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⑤ 오계의 실천: 수계(受戒)와 분수(分受)

삼귀의(三歸依)를 한 불자라면 수계(受戒)라는 의식을 통해 법명(法名)을 받는다. 이 의식에서는 오계(五戒), 즉 다섯 가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맹세한다. 어떤 이는 계(戒)를 받아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계를 받아서 지니겠다는 마음속의 굳은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계는 계를 지키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에 계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부파(部派)에서는 계를 받고 지키겠다고 서원할 때 계체(戒體)가 획득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계를 지킬 것을 스스로 결심하고 맹세할 적에 그릇됨을 막아주고 악을 멈추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힘으로 인해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충동적인 감정으로 인해 살생하려고 할 때, 마음속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런 행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계에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지만, 평생 지킬 각오로 계를 받기 때문에 '목숨이 다할 때까지' 라는 뜻이 담겨 있다.

부처님 당시에는 삼귀의를 함으로써 우바새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계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렇지만 열렬한 우바새는 삼귀의를 한 후에 다시 오계를 받고 '구족(具足)의 우바새' 가 되어 수행했다. 오계 가운데 불사음계(不邪婬戒)는 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지만, 우바새 가운데서도 성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범행(梵行)을 지키는 이가 나왔다. 우바새가 불법(佛法)을 깊게 이해하여 마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 예류과(預流果)에 도달하여 성욕이 없어진다. 이런 범행을 지키는 우바새를 '단음(斷婬) 우바새' 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욱가장자(郁伽長者)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초기불교 시대에는 삼귀의를 한 우바새, 삼귀의를 하고 오계를 받아 지키는 구계의 우바새, 범행을 지키는 단음우바새가 있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전과 달리 오계의 실천에 다소 유연한 입장인데, 오계의 분수(分受)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 오계 전부를 받지 않고, 일부만을 선택해서 받는 것이다.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에서는 다섯 종류의 우바새, 즉 오계 가운데 1계만을 받는 일분행(一分行) 우바새, 2계를 받는 소분행(小分行) 우바새, 3계 · 4계를 받는 다분행(多分行) 우바새, 전부를 받는 만분행(滿分行) 우바새, 오계를 받고 난 후에 범행을 서약한 단음(斷婬) 우바새가 있다고 설한다. 이는 오계 전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이는 일부만이라도 받아 지키도록 한 것이다. 오계 전부를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만이라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는 "재가신자에게 오계법(五戒法)이 있는데, 이를 마음속에 깊이 굳게 받아 지녀야 하며,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오계를 파(破)해서는 안 된다"고 설한다. 오계의 일부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계 전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오계의 일부를 지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오계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계의 실천에 대한 엇갈린 입장은 재가자의 다양한 종교적 욕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는 재가자가 지켜야 할 수준 이상을 지키지만, 일부는 하나의 계조차도 지키기 어려워한다. 만약 오계 전부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이상론을 고집한다면 오계를 받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반면에 오계 가운데 하나라도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추어 지켜도 된다고 한다면 계 자체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따라서 재가자는 원칙적으로 오계 전부를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⑤ 고행의 두 유형

고행과 사회의 관계

"장발의 고행자는 바람의 옷을 입었어, 흙먼지의 옷을 입었지. 그들은 신들이 걸어갔던 그 바람의 길을 따라간다네."

거의 3천여 년 전, 고대 인도의 시인들이 지은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여기 나오는 장발의 고행자는 아마도 나체의 고행자로서 기름때와 먼지로 범벅이 된 긴 머리카락을 끌면서 땅을 기어가고 있었을지 모른다. 궁금해지는 건 이들이 어떻게 생존해왔고,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고행자 또는 출가사문은 불교가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 삶의 형태가 불교를 간접적으로 말해줄 것이다. 고대 인도 사회에서 고행자의 유형은 세속 사회와 관계를 고려해볼 때 크게 두 그룹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그룹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견지하는 고행자들이다. 이들은 거의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인위적으로 음식을 지어먹거나 사람들이 만든 옷감을 걸치지 않는다. 당연히 인간관계가 불가능한 깊은 산속이나 계곡에 살면서 나무껍질과 잎으로 옷을 해 입고 풀뿌리나 나무 열매로 생존한다. 숲속에서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을지언정 마을에서 재배된 채소들도 기피한다. 인간이 일구어놓은 밭을 가로지르거나 마을 근처에도 서성거리지 않는다. 쟁기로 갈아엎은 밭이야말로 인간 문명의 상징이므로 이 고행자들은 '밭 근처에 가지 않는 존재' 로 대변된다. 한마디로 인간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형태의 고행주의다.

또 다른 고행자 그룹은 세속 사회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거의 아무런 소유물도 갖지 않은 채 매우 소박한 생활을 꾸려나간다. 음식이 필요할 때는 마을에 들어가 탁발하며, 몸에 걸칠 것이 필요한 경우는 사람들이 버린 옷이나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내 세탁한 다음 입는다. 길게 머리카락이 자라면 상투머리를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삭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마을 인근에 머물지만, 비가 계속되는 우기(雨期)에만 한 지역에 머물 뿐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머무르지 않는다. 적당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나 나무 밑에서 잠자리를 청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주는 대체로 도시나 마을사람들과의 일정한 의존관계를 통해 유지되었다. 세속적 인간사회에 기생(寄生)해 있었던 그런 고행주의의 형태를 갖는다.

전자에 해당하는 고립형 고행자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 완전히 인도 땅에서 사라졌으나 조각이나 문학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이런 고행자의 모습은 가끔씩 불경 속에도 묘사되는 일각(一角)선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일각선인은 석가모니의 전생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고행자는 숲속에서 홀로 고행하던 아버지와 사슴 사이에서 태어난다. 그 결과, 일각선인은 태어나면서 뿔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로지 숲속에서만 고행에 전념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이 재배한 음식과 과일의 맛을 모를 뿐 아니라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그 후, 그 나라에 혹독한 가뭄이 찾아오자 일각선인의 신통력을 빌어 비를 내리기 위해, 왕을 여성들과 음식으로 유혹해 이 '야생의 존재' 를 도시로 데려온다.

이런 고행자의 전통과는 반대로 후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사회기생형 고행자 전통은 우리가 잘 아는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은 사문 그룹으로 발전한다. 불교 이전에도 이들은 마을 가까운 숲이나 화장터, 계곡이 있는 산허리쯤에 거주하며 살다가, 때로 무리가 형성되면 보시를 받아 일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사원이나 거주처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고대 고행자 유형은 세속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특이하게도 두 고행자 유형은 성(性)과 결혼에 관한 입장 또한 상반된다. 고립형 고행자가 성과 결혼을 더 금기시할 듯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고립형 고행자들은 숲속에서 처자식을 거느리는 경우가 가끔씩 나타나지만, 기생적 고행자들은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기피하였다. 우리가 고대 인도의 고행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27호 | 17 | 전면광고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칼과 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칭하면 모두
끊어지고 부서져 벗어나게 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법광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세이상 가족같이 지내실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223-3705

★검 색★
G 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 행자승(20세 ~ 45세)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절에서 요양삼아 기도하고 소일하며 가족같이 지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경기도 양평 기도영험도량 천인사
031)773-7746 , 010-8777-1775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3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同聲相應하고 同氣相求할
같은소리로 상응 같은기운 서로 구
因緣을 찾습니다.
인연
鄭○溶 (64세) 010-6401-2023

깜짝 놀랄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사람이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삼불원융 수행법!!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의
핵심수행법 문의 : 010-3514-7084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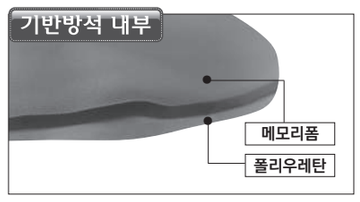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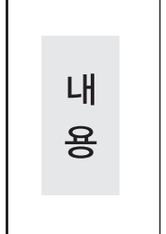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27호 | 18 | 전면광고

삼보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닌 사람은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나는 일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앞마당까지 진입
- 대지1500평, 개발예정지4000평, 개발된것1500평, 건물 36평 2동, 8평 1동 콘테이너 8평

010-4752-0459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차장
- 경전철 역세권
-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010-4492-3479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땅값만 받습니다
- 총 530평, 현재 성업 중
- 법당, 요사채, 공양간, 휴게실, 삼층석탑, 석등 등, 부산 울산간 지하철 역과 5분거리
- 가액 : 6억 2천만원, 스님 직접

010-2702-0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8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783-2번지
- 대지110평, 전354평
- 가격 절충
- 심명암 심오 합장

010-3340-6537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함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포 교 원 할 분

-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 2층건물에 2층, 20평 남향
- 코너건물, 보증금 2백, 월 40, 시장옆
- 공양주, 부전 일할분, 쓸분
- 대출안내, 매매상담(상신사)

010-5381-1419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 찰 안 내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2백, 월세15만 권리금3백

010-2204-8375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찰(급)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 전주시 전경 한눈에, 이성계 기도처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년세 10만원) ● 법당(요사체 최신형), 극락전(목조신축) ● 가액 : 5억5천만(대출 2억5천만, 추가대출 가능) ● 조건 : 양도시 모든석불, 석탑 포함(석불 1억5천 조성) ● 납골당 설치됨, 시내중심, 대나무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 ● 1억5천만원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 잔금 1억5천만원 5년간 분할납부 ● 용왕전 약수터 2억 토목공사중

010-9647-0723

세종시 상가안내

◈ 사찰·토지·임야와 교환도 가능 ◈
정부청사앞 인기 급상승자리
7층(E/V有) 분양138.6㎡
가액 6억(절충가)
융자1억8500, 실가액4억
현재 레스토랑 운영중
(보2천-월138임대중 23년만기)
업종변경가능·임대업최적·투자가치최상급
시세대비저렴함·주인 직거래

010-6892-399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빠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일체지혜 바로 아는 수행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은 태장만다라 12대원중의 편지원(遍知院) 중앙에 위치한다. 7존 구성 중 1존이다. 보련화 대좌위에 삼중의 삼각형으로 형성하고, 중앙에는 우만자(右卍字)가 있고, 삼각형 외각에는 화염광(火焰光)이 있으며, 그 정상에 우만자가 있고, 그 외각으로 둥근 원형이 있는데, 중앙에 원형의 3겹 광염(光焰)이 있고, 다음은 순백색이 있고, 다음으로 화염광(火焰光)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대륜형(大輪形)이 모두를 감싼다.

편지원은 대일여래의 지혜의 덕을 나타낸다고 한다. 편지(遍知)란 지(知)와 일체지(一切智)의 뜻을 말하고, 지혜(智慧)는 실담범어로, 깨달음으로 인도해 부처를 탄생시킨 불모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편지원을 불모원(佛母院)이라고 한다.

수행법은 삼중 삼각형은 삼세제불의 지혜를 표현하므로 지혜를 관상(觀想)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다. 중앙의 삼중 삼각형 위의 광염을 관상하여 모든 삼독의 번뇌를 항복 받아 사마타와 비빠스야나의 지관쌍수를 한다. 중앙의 우만자를 관상해 본유의 보리심을 얻고, 삼각광염위의 만자는 길상을 의미하면서도, 태양을 표현하므로 관상하여 명(明)을 찾아가는 것이다.

원형삼겹의 광염을 관상하여 삼독을 제거해 맑고 청정함을 나타낸다. 순백색은 대자비를 표현함으로, 관상하여 자비심을 나타낸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③ 근이양증장애인 권오웅씨

사랑은 '장애'를 넘어

안동에 사는 근이양증 장애인 권오웅 씨는 삼십년지기 도반이다. 근이양증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점진적인 근력 감소로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보행 능력 상실, 호흡근력 약화, 심장 기능 약화 등이 나타나는 진행성 장애다. 그럼에도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 봄날"이라고 말하는 권오웅 씨는 특별한 사랑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열다섯 살 무렵 근육병 증상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느낀 뒤, 오웅씨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죽을 생각으로 가출도 했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후 몸과 마음이 힘들 때면 틈틈이 글을 써서 〈새농민지〉에 투고했다고 한다. 당시 권오웅 씨는 글을 쓰면서 평생 함께할 자신의 반려자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여동생도 관세음보살을 3000번 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스님의 말씀을 믿고 오빠가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서원하며 공책에 수없이 관세음보살을 사경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새농민지〉에 실린 글을 읽은 22살의 한 아가씨가 권오웅 씨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경주에서 안동 두메산골까지 찾아왔다. 바로 지금의 아내 이화숙 씨다. 화숙 씨의 확고한 마음에도 권오웅 씨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그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몇 번이고 돌아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부처님의 가피로 맺은 운명에 감사하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매순간 행복했지만 아찔한 고비도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지인들과 정초기도를 위해 사찰에 가는 길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한달간 의식불명 상태가 됐던 것.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살아만 있어줘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죠.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 했어요."

지극한 기도 덕인지 이화숙 씨는 곧 의식을 찾고 빠르게 회복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화숙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으며, 두 자녀는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이 부부의 사랑을 곁에서 보고 있자면 절로 미소가 나온다. 서로 죽고 못사는 사랑이기보다,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몸의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져서 혼자 서있기 힘든 권오웅 씨의 눈에는 항상 아내 이화숙 씨에 대한 믿음과 애틋함이 가득하다.

권오웅 씨는 아내와 함께 안동시내 사찰인 해동사를 다니며 신행생활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면을 빌어 해동사를 향한 감사인사도 전했다. 사찰 신도들도 그를 대할 때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거나 특별대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감사하고, 장애가 심해지면서 주지스님께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 드렸더니 어려운 형편에도 이를 추진해주셨다는 것이다.

감사한만큼 해동사를 향한 애정도 크지만, 최근 들어 장애가 심해지면서 외출이 더 어려워져, 불교언론이나 유튜브로 법회나 불교강연, 공연, SNS 속의 불교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다는 근황도 전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불교 콘텐츠들은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예요. 꼭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법문을 듣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공간에서 불교공부, 법문, 예불, 정근 등 불자로서 신행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니 수행환경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형태의 불교신행에 눈을 뜬 만큼, 종단 혹은 사찰 주도로 새롭게 개발된 불교콘텐츠들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자랑을 많이 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나 역시도 지난해 봄, 해인사의 첫 온라인법회를 접하면서 코로나19와는 별개로 장애인 포교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적이 있다. 오프라인에서 사찰의 편의시설 등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유튜브, SNS,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 포교의 방법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보리수아래도 요즘 언택트 화상 모임을 준비 중이다.

오웅 씨의 아버지가 그를 소중한 아들로 사랑했고, 아내 화숙 씨는 남편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자식들은 그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러한 여건은 오웅 씨가 제16회 샘터 '올해의 인간승리상' 본상, 제10회 당산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이자 국제근육병장애인협회장,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원, 금춘가족지 발행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토대가 돼줬다.

이와 같이 어떤 장애를 가졌더라도 한 사람의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교계에 한층 더 다각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가만히 발원해 본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18년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북콘서트에서 권오웅 씨(중앙)와 부인 이화숙 씨(오른쪽)가 함께한 모습.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❸ 켄 윌버의 〈무경계〉



▶ **한줄 요약**
세계와 나의 합일을 추구하면 평화가 온다.

'나는 누구인가' 관한 동서통합 접근



켄 윌버 (Ken Wilber)는…
자아초월심리학의 대가. 의학을 전공하던 중에 노자 도덕경을 접한 후 동서양의 심리학과 철학, 종교, 영성에 심취, 모든 갈래를 통합하고, 과연 인간의 의식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 지평을 가리켜 보이기 시작했다. 23세에 쓴 처녀작 〈의식의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이를 요약한 〈무경계〉는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저술이 되었다. 저술로는 〈통합 명상〉, 〈통합 비전〉, 〈통합 영성〉, 〈모든 것의 목격자〉, 〈성, 생태, 영성〉, 〈아이 오브 스피릿〉 등이 있다.



깨어남을 위한 방아쇠

'무아지경'은, 문자 그대로 '나'라는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술 작업에 몰두하거나 빼어난 경관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다. 남녀관계도 절정에 이르면 '나와 네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에 도달한다.

무아지경 곧 황홀경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속되지 않는다. 그것이 중생들의 삶의 현주소다. 중생은 '나'를 어떻게든 세상에 인상적으로 각인시키고 싶어 하면서 삶이라는 드라마를 이어가고, 내 주의주장을 관철하려는 사람들로 만원이기에 세상은 늘 소란스럽기 마련이지만, 그런 중생들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아지경'을 추구하는 본성을 깔아두고 살아간다. 왜 한편으로는 '유아지경'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아지경'을 추구하는 것일까? 왜 '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도 안절부절못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세상살이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유욕이나 권력욕, 명예욕, 성욕을 달성할 때에도 잠시 잠깐 무아지경의 황홀이 주어지지만, 무아지경은 정말로 '어쩌다가' 만나게 되는 행운일 뿐, 쉽사리 생활화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리하여 살면 살수록 '무아지경'이 궁극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중생살이에 더욱 몰두하게 만드는 미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사랑은 짧고, 생활은 길다'.

어쩌다 만나게 되는 무아지경을 위해서 한 생애를 다 낭비해 버리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멈춰 세우고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란 누구인가? 왜 인생은 괴로움이 주조음(主調音)일 수밖에 없는가?

켄 윌버에 따르면, 삶이 고통이라는 인식, 삶에 대한 극심한 불만은 '정신질환'의 신호도 아니요, 사회부적응의 지표도 아니며, 인격장애도 아니다. "삶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 내부에 감춰져 있는 것은 흔히 사회적 위선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매몰되어 있는 '특수한 지성'이 움트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람은, 소위 '표준적인 자기만족'이 가져다주는 위안에 머물지 않는다.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 가져다주는 위안을 오히려 산산조각내어 버리고, 자기 자신과 세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경계 너머, 그리고 의식의 스펙트럼

삶이 고통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그리하여 '나'라는 것을 세심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최초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나'를 '나'라고 경계지었던 그것이 잘못된 경계선에 지나지 않다는 자각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곧 '나는 어디에 경계선을 긋고 있는가?'라는 의미이다. 질문이 촘촘해질수록 경계선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 다시 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몸'이라는 인식은 '나는 나의 몸이 아니다'라는 바른 인식으로 바꾸어지고, '나'와 동일시되었던 '욕망'이나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나는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탈바꿈된다.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물 또한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명해진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을 하는 그 주체는 어디에 자리잡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의 뒤에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순수한 각성 자체이다. 나는 나의 몸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저런 욕망이 아니라, 이런 저런 욕망을 갖고 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갖고 있다.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갖고 있다'는 그것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욕구를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점이 오게 된다. 세상 만물을 대하는 나의 모든 것은 흔들리지만, '그것'만은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주시자'이다. '태풍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근원은, 주변에서 사납게 휘몰아치는 불안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아무런 상처 없이 투명한 고요함을 유지한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소란의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의식하는 '중심'이 곧 나의 실체임을 알아차리고, 그 실체 안에 머무는 법을 터득한다는 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 표면 위의 파도로부터 고요하고 안전한 해저의 심연으로 잠수하는' 능력을 얻는 것과도 같다.

> **자아 넘어선 무아지경의 세계**
> **깨달음 지평관한 정교한 고찰**
> **'나' 내려놓고 '무한'에 내 맡겨**

진정한 나를 살지 못하고 가짜의, 허구의, 날조된 나(페르소나)를 살고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타인과 세상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투사)이라는 자각을 거쳐, 초개인적 주시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켄타우로스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나'라는 경계선이 저절로 허물어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일상의 개인적 '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주관하는 초개인적 '나'가 따로 있어서, 아직 순수한 합일의식에 다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개인적 '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는 지속적으로 주시자로서, '진정한 자기'로서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게 된다. '나'라는 좁은 인식의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제약과 문제들로부터 한발 비켜나는 데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발을 빼고자 한다.

대립과 투쟁에서 삶의 춤으로

켄 윌버는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지혜전통들에 나타난 '합일의식'을 줄기차게 가리켜 보인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예수에게 제자들이 재차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을 밖처럼, 밖을 안처럼, 위는 아래처럼 만들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그 왕국에 들어가리라."(도마복음)

"빛과 그림자, 긴 것과 짧은 것, 검은 것과 흰 것, 이와 같은 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릇된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단독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다만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일 뿐이며, 실재가 아니라 관계성을 말하는 단어들이다. 존재의 조건은 상호 배타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질적으로 사물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능가경)

"있는 것은 고통뿐, 고통받는 자는 없다. 행위는 있지만, 거기 행위자는 없다. 열반은 있지만, 열반을 구하는 자는 없다.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자는 없다."(청정도론)

'개인인 나'가 구획하는 경계선으로 인해 대립이 생기고, 대립은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대립되었던 것들이 실은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불화는 조화로 녹아들고, 투쟁은 춤이 되며, 오랜 숙적은 연인이 된다. "이 우주에는 어떤 경계도 없다. 경계는 실재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실재를 작도하고 편집한 방식의 산물, 즉 환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 자체가 합일의식을 호흡하고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합일의식 속에서는 초개인적 주시자 자체가 주시된 모든 것과 함께 붕괴될 것'이지만, 합일의식에 다다르기 위한 수행법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합일의식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경계선과 경계선을 넘으려는 노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합일의식을 찾으려는 노력은 까비르가 노래했듯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도 같다. 합일의식에는 길도 없고, 성취도 없다.

이를 두고 크리슈나무르티는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 진리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진리를 찾는 자는 결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벽 선사는 "획득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다"라고 하였다.

합일의식 도달하기 위한 '길 없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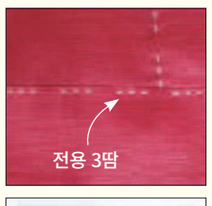
아무리 획득하고 누리고 싶은 합일의식일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합일의식의 가장 큰 역설이다. 켄 윌버에 따르면, 합일의식의 실현은 '길 없는 길'이지만, '특수조건'이 있을 수 있다. 합일의식을 호흡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특수조건', 그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각자들이 가리켜 보이듯이,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이고 붓다이다. 좌선을 하든 안하든,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 '성스러운 섭리'를 살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합일의식에 저항하고, 도(道)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형상으로 표현된 신성이요 불성인데도, 우리는 진리의 현존에 저항하고 있고, 충만한 삶에 반항하고 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를 전폭적으로 무한의 흐름에 내맡겨야 한다.

그리하여 "근원적 저항이 해소되는 정도에 따라 세계로부터의 분리도 해소된다. 모든 형상 그대로의 현재를 보지 않으려는 망설임과 저항에 대한 깊고 전반적인 명도(넘겨짐, 내맡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안과 밖 사이에 스스로 세워 놓았던 근원적 경계가 완전히 붕괴된다. 현재 경험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될 때, 현재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려는 어떤 동기도 갖지 않게 된다. 세계와 자기는 두 개의 다른 체험이 아니라, 다시 단일한 경험이 된다."

〈작가〉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전용 3땀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대행 스님

나의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심성의 활용이 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음미하고, 마음 도리를 연구하는 데에 몰두하는 도반으로서 만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중반기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우리 개별적인 의의는 낳을 수 있을지언정 포괄적인 의의는 낳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중반기에 들어서서 세계와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포괄적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대인이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일이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대인이 되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연구할 단계가 못 돼서 개별적으로 연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과학이라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니,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과 어디로 돌아서 회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심성의 활용이 있듯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문제도 광대무변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포괄적인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광대무변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이 진리가 툭 터져서 지구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보는 것 없이 보고, 듣는 것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가끔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복적인 신앙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의 강대국에서 또는 약소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한계가 있다. 어디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 유전과 무전, 즉 말하자면 유와 무, 유개체와 무개체, 무생과 유생, 이 모두가 어떻게 해야 회전을 할 수 있으며 광대무변한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젭니다.

그런 데에 도달해서 있느니만큼,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탐지기나 컴퓨터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고, 여섯 가지 중에 책정기가 누진통이라고 했죠. 그것은 이름으로써 얘기했을 뿐인데 활용하고 빛을 내고 여여하게 회전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화광주니 야광주니 하는 구슬로 말했습니다. 걸림 없이 굴리는 데에 아주 여여하다는 뜻으로서의 빛광주 또는 원광주, 해광주를 금강주에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섯 가지를 책정기, 즉 누진통이 그렇게 다룬다는 것만 얘기했지, 금강주라는 것은, 그 다섯 가지 구슬을 굴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을 하는 데는 그 구슬을 얻지 못하고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용(龍)이 줄을 타고 오를 때에 구슬이 없으면 오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인간도 무의 법, 유의 법을 회전하는데 법망에 걸리지 않고 걸림이 없을 때에 비로소 다섯 가지 구슬을 얻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굴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름해서 금강주입니다. 이것을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나는 무슨 책을 봐서 이런 얘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허허허.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강주' 하면은 이름해서 육바라밀에 속합니다. 보살행으로서 들어가는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금강주에서 그렇게 굴릴 줄 알고 여여하고 걸림이 없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칠보가 가득 차 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주인공의 뜻을 알아서 굴릴 수 있다면 바로 칠보라는 것입니다, 칠보! 전체가 둘이 아닌 칠보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모습 없는 모습들, 생명체가 전부 움죽거리고 있는 자체는 바로 진화력도 되지만 생존의 경쟁도 되고 생존의 부활도 되고 생존의 개발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음미해 본다면 아주 묘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지금 시공이 없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약한 생각 또는 미신의 생각으로서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행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주 얕은 생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야만 하나 이런 겁니다. 칠보가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서 다 지혜가 나올 텐데 말입니다. 요거는 내 의견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잘 파악해서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잘하려면,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떼어 놓은 거는 없어지고 한 발이 또 되듯이, 우리가 지금 '칠보' 하면 벌써 육바라밀은 칠보가 집어먹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포함해서 있으니까. 포괄적인 칠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여하고 보배로운 자가발전소에서, 물론 가설이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자가발전소는 본래 내 안에 있으니까, 스위치만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들어오게 돼 있는데 모르니깐 그걸 발견을 못 해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요렇게 아주 쉴 사이 없이 다가오는 그 나툼을 우리가 작게 생각을 하면 나툼이라고도 하고, 윤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투어서 역력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음미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이 그 안에 들어서 무수히 돌아가고 있으니, 이 돌아가고 있는 나툼을, 무와 유를 한데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 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치면 팔(八)입니다. 시방세계에 무와 유를 한데 합치니까 팔이 된다. 팔이 되니까 이게 여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칠보가 거기 또 팔에 포함된 겁니다. 팔정도에 포함이 된 겁니다,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팔정도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팔정도로 돌아가는 데에는 언제나 포함해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심성입니다. 그래서 그 심성을 포함해서 구정토, 즉 말하자면 구경계, 구경계로 하여금 시방세계에 두루 회전이 될 때 불이, 불이법이 거기에서 조성됨으로써 십이인연법을 넘어선 단계로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기보다도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면은, 말은 조금 다를지언정 뜻은 똑같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람 사는 이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변천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계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사람이 살 양으로만,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써 우린 계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계발입니다.

지난번에 경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모르면 경쟁이고, 넘어서면 계발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밀치려고 해서 밀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힘이 부족하면 스스로 밀리는 거죠. 누가 나쁘게 만들려고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환경에 따라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이 소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이 자기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한생각이 자기에게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 한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조 시대 어느 때라고 봅니다. 이조 시대 때 스님네들이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삿갓을 쓰고 결국은 머리를 기르고선, 어느 산골에다 토굴을 파고 도반들과 거지처럼 얻어먹어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들 있는데, 항상 탁발을 하러 나가면서도, 한 고비를 넘기고 산을 넘고 이러다 보면…, 이걸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연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산을 넘고 가다 보면 아주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사람도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뱀도 그 웅덩이에 빠지기만 하면 나오지 못해. 캄캄한 암흑 같은 곳이니까. 그래 가는 데마다 발을 옮겨 놓는 대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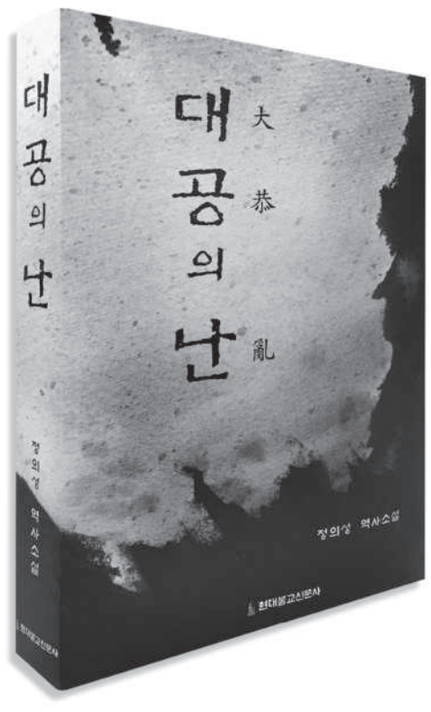
☞ 22면으로 계속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요. 가다가 또 건져 주고 "얘야! 너희들을 건져 주면 나중에 또 나를 못살게 굴지는 않겠는가?" "절대…. 생명의 은인이신데, 날 건져 줬는데 어떻게 해하리까?" 그래서 건져 주고 건져 주고, 그런데 다 건져 주고 나니까 전부 자기의 부하가 된 겁니다. 사람도 마지막에 건져 주고, 사자도 건지고 호랑이도 건지고, 뱀도 건지고 원숭이도 건지고 다 건진다 말이야. 그렇게 건지다 보니깐 전부 자기 군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사람이 있는데 구덩이에서 아우성을 치는 걸 건지려고 하니까 뱀이 있다 하는 소리가, 사자도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도대체 남의 은공을 몰라. 그러니 저렇게 빠질 때는 다 어떠한 죄상으로 빠진 거다." 이러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마는 사람은 나오기만 하면 꼭 당신에게 해를 줄 겁니다." 이러거든. "그렇지만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 하면서 하는 말이 "언제적의 죄로 나를 해할까 봐 무서워서 건져 주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저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저 모습이나 내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건져 주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하면서 "너도 예전에 그랬지 않느냐?" 하고서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고선 울었답니다. 그렇게 건져 주고 나서 휘적휘적 바가지에 조금 얻어 가지고 왔죠.

어느 날 또 얻으러 나갔는데 한 집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자기 은사를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리고 불공드리던 대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식구들을 얻어서 연명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대감네 집을 찾아가니까 그 집에서 패물을 줬습니다. 그 패물을 가지고 가서 지금으로 치면 금세공 집에 가서 팔겠다 했겠죠. 그런데 마침 가 보니까 그 세공하는 아버지가 바로 언젠가 건져 준 적이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러나 그런 얘길 해도 그 아들은 들은 둥 만 둥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을 보니까 눈이 휘번덕거려졌죠. "내가 물어봐서 이거 살 사람을 구해서 팔아 주겠소." 해 놓고는 바로 원님한테 찾아갔어요. 원님한테 찾아가서 고자질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나라에서나 나오는 건데, 묘(墓) 도둑질한 건지 모르니까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 상금이나 받을 줄 알고 그랬죠. 그랬더니 원님이 너는 요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상금을 내리겠다 하고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고선 그 스님은 붙잡아다 가둬 놓고 원님은 그 패물을 들고 한양엘 왔습니다. 임금한테 와서 이러한 얘기를 다 하니까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것은 대궐에나 있던 패물인데 어째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갔느냐. 필시에 이건 도둑놈이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데려다가 감옥에 가뒀죠. 이제 참(斬)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스님인 줄 모릅니다. 머리도 기른 데다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상놈인데 형편이 어려워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줄 알겠죠.

그래 인제 들어가서 있으려니깐 아, 밥을 주는데 입맛이 없어서 영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 사람들이 죄 굶어 죽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입맛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목이 메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날이 이제 가까와 올 텐데 밥이나 배불리 먹어둬!"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뜬 겁니다. '어떡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하고선 생각을 하던 중 뱀 생각이 났습니다. "야, 뱀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즉시 달려와서는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만저만하여 꼼짝없이 이거는 묘 도둑놈으로 몰려서 죽게 됐어. 참한다고 한다. 그러니 어떡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써 스님이 날 알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뱀은 뱀으로 살던 습이 있어. 독이 있고. 그 습이 있어서 능수능란하다 이거야. "그러니 걱정 마시고, 나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들어가서 대비마마를 꽉 물어뜯어서 독이 올라서 정신 상태가 흐려지고 살이 전부 시퍼렇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마마 눈에만 내가 뱀으로 보일 거고 방방곡곡에서 고치려고 해도 아무도 못 고칠 겁니다. 그때 당신이 들어가서 이마에다가 손만 얹는다면 그 독이 전부 다 빠질 테니 그 후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거든.

그러고는 뱀은 쏜살같이 대비전으로 들어갔어요. 대비 눈에만 보였지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얼른 물고선 달아나갔죠. 달아나가나 마나죠. 알고 본다면 달아나갈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누군가? 바로 그 스님이란 말입니다, 둘이 아니기에. 급한 거를 면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음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그렇게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옥 안에 들어 있으니까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여기서 쑤석쑤석 저기서 쑤석쑤석 야단났고, 온 방방곡곡의 의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뭐, 까딱없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참하고 말고 그거는 뒷전이고, 하여튼 야단이 났어요. 그때쯤 임금한테 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고쳐볼 수는 없겠는지요?" 하고 청하니까 "그러면 들여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재판도 해 보지 않고 남의 소리만 듣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러면 목욕을 시켜 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그 방엘 들여보내진 거죠. 들어가서 손을 대비마마의 이마에 짚으니까 아, 얼마 안 있어서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면서 그 시퍼렇던 게 차차차차 위서부터 아래로 다 삭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임금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전국에서 한다 하는 의사가 다 들어와서 봐도 영 가망도 없더니 이렇게 나을 줄이야. 참,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보물 얻은 그 사유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그 사유를 죽 얘길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금세공 아버지가 덫에 걸려서 있는 거를 살려 주었다는 얘기도 했지마는 그거는 아랑곳없죠, 그걸 모르니까. 그랬는데 스님이란 소리는 안 하고 그 대감님이 그렇게 주셨다 하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취해 봤겠죠? 보니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도둑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자질한 그 금세공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라고 하고, 그 스님을 임금이 아주 믿고, 국가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 버렸죠, 너무 믿으니까. 그러자 이분은 그때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방도 튼튼해야 하고 국가의 재정도 그렇고 모든 문제, 지금이나 그때나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임금은 다 듣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빨리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뱀 얘기 했죠? 그 얘기처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국방에 참, 나라에 대책을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우리는 이 물질적인, 어떠한 수효의 사람들만 채워 놓는 게 보통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도 사람 아닌 사람이 더 많단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군인 한 명에다가 군인 마음의 그 마음 근본을 넣어 준다면은, 즉 말하자면 잠재해 있던 의식 자체를, 유명한 사람들을 다 넣어 준다면 열 배나 위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마음을 휘어잡지 않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을 휘어잡아서 이겨야지, 마음을 휘어잡지 않고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 채 그 마음을 회전하지 못하고야 어찌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죽이기만 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듯이 앞으로 이러한 도리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점 살기가 어려운 세태가 다가온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국민이라든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나 또는 경제를 위해서라든가 공업을 위해서라든가 국방을 위해서라든가, 그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체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먹어 보고 맛을 알지 못하는 이상, 내가 말로 해서 확확 나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이 그렇게 귀중하다. 한생각이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낼 수 있는 회전의 근본 원력이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최초의, 나 자신의 태초를 모르니 어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생각을 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인이 됐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불국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초에 생길 때에, 사람으로 그냥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는가? 내 배 속에 내 태초의 모습이 있죠. 보세요, 없나? 그걸 역력히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모여서 인간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게 커져서 자꾸 진화되고, 그것이 자꾸자꾸 늘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커졌습니까? 인간으로서, 고등 동물로서. 그리고 또 시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개발이 됐습니까? 전자엔 먹을 게 없어서 쩔쩔매고 인종이 그렇게 드문드문 있더니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많고, 또 전자에 내 모습으로 살았던 짐승들을 보라구요. 짐승들이 사람이 되고 기어 다니다가 서서 다니고 이런 거지, 꼭 처음부터 이렇게 서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만큼 진화되고 이렇게 발전이 된 것도 그 중세계에 우리는, 이런 중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불국토를 이룬다 할 때는, 회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생각을 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인이 됐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불국토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는 점점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뭡니까? 남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남을 때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화를 입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無)의 세계의 어떠한 문제를 연구한다고 그러고, 계발한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하다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둘로 보지 않고 언제나 선의적으로 우리가 계발을 한다면, 그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악하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선신으로서 잘 나와서 자기의 길을 인도합니다. 바로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로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르고서, 그쪽의 능력도 모르고서 뚜껑을 열었다가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건 뭐냐?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건 깨지는 겁니다. 한 모퉁이가 깨질 수도 있고, 물로 그냥 '팡' 칠 수도 있고, 불로 다 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는 식입니다. 몇 수억 천 년을 살아온, 모습 없는 모습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닙니다마는 모습 없는 모습이 온 누리에 아니 다니는 데가 없이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허공에도 살고 있고 또 혹성에도 살고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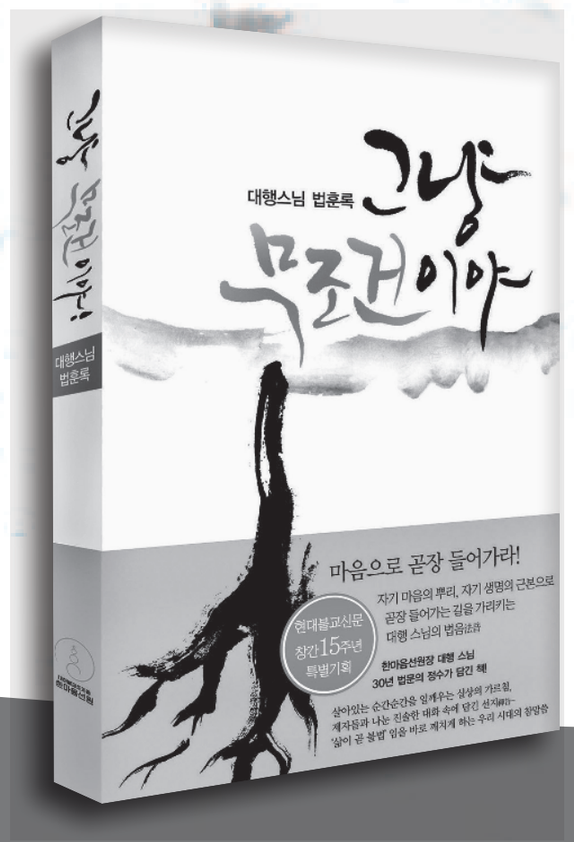
그러면 연구한다고 거기까지 파헤쳤을 때는, 다는 파헤치지 못하고 한 부분만 파헤쳤을 때는 그때는 참 위험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해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위험 지경에까지 도달했을 때는, 탁 이렇게 안아서 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렇게 이끌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음미해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때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죠, '내가 피곤하지.' 그러면 벌써 알게끔 해서, '좀 쉬어야지.' 하고 쉬게끔 마음이 들게 하고, '아휴, 좀 개운한데!' 하게끔 만들고, 그러고서 또 피곤하면 '목욕 좀 해야지.' 요런 마음이 들게 하고. 일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건건(件件)이 자기를 생각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 현불 논단 |

코로나19 유행 1년에 부쳐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1월 20일 코로나 발발 1년
'거리두기' 생존 법칙 되며
기존 '삶의 방식' 뒤흔들어

코로나19 발생과 대유행은
아만·집단 이기주의가 원인
모두 연기법 無明서 비롯돼

연기법 실천이 필요한 시대
모든 존재들이 함께 춤추는
연기의 광장을 만들어 보자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 지난해 1월 20일이니 1년이 지났다.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 간 지속적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했는데 이를 어쩌랴, 지금은 전 지구촌이 이 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은 이제 전 인류를 공황 상태에 빠트리고 있다.

이제 코로나는 인간 삶의 양식(way of life)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존법칙이 되면서 개인적인 삶의 양식에서부터 집단적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진 문명'으로 칭해지던 서구 문명의 속살과 민낯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들은 코로나19에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체성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 중세시대의 종언을 초래했듯이 코로나19는 인류문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관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대구에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당시 어느 간호사의 절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곧 너이고, 네가 곧 나인 듯 서로를 지켜야 한다."

이 간호사의 절규는 바로 연기법의 실천을 요구한다. 불교 사상의 핵심은 연기론에서 출발한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 7년 동안의 사색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연기론적 세계관이다. 연기론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 존하여 생성되고 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기법에서 무아와 자비 사상이 나오고 중도 사상이 나온다.

〈중아함경〉에서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요, 진리를 보면 곧 연기를 본 것이다"라고 붓다는 설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과 대유행은 바로 연기법에 대한 무명(無明)에서 나온 것이다. 나라는 아만, 인간 중심의 사유, 집단과 국가이기주의의 무명이 만들어 낸 비극이다.

붓다의 연기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내용과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그 방법도 매우 정교해졌다. 연기론은 시대의 요구와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었다. 그러나 붓다 입멸 1,500년이 지난 후 연기론의 생동감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는 지식정보사회로 불리는 시대에 살면서 삶의 양식과 사유의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연기론은 삶의 괴로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하였는데, 오늘날 삶의 괴로움 영역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구촌 전체로 확대되고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불완전한 인간이 지구촌의 생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다량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다양한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념과 문화,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한 싸움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대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불교는 단순한 믿음이나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이 결코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는 것이어야 한다. 이 시대의 연기법은 새로운 '창발'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연기법으로 체감하고 공감하는 것이 '공명(共鳴)'이고, 연기법의 틀에서 생활하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자비'이다.

이제 연기법의 지혜와 자비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존재가 함께 춤추는 연기의 광장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꿈이라도 좋다. 그 꿈속에서 연기법의 묘용이 창발할 것이니.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만에 걸려온 반가운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 톤도 올라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황을 물었다. "매일 똑같죠. 목요일은 아내에게 갑니다."

거사는 아내를 보낸 지 어느새 3년이 되었다. 집 가까이 있는 납골당에 아내를 안치했다고 한다. 목요일마다 아내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 그 정성에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4년 전에는 아내와 함께 몇 번 만났었다. 아름다운 아내였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30년 째 투석중이어서 물 한모금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스님,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어요. 투석을 30년을 했으니 말해 뭣하겠어요.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말했다. "나 한 번 더 실려 가면 그냥 보내줘요. 나 정말 힘들어." 그때는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나도 같이 울었다.

며칠 후, 거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스님, 집사람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목소리에 나는 한달음에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보살



그림 · 최주현

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여러 의료기를 주렁주렁 달고 간신히 숨을 헐떡이고 있는 힘든 모습을 보는데 '보내달라'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병문안을 마치고 거사와 병원 로비에 마주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스님 이제 보내줘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거사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는 병고로 힘들었던 한 생을 마감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거사를 만났을 때 많이 힘들어 보였다. "요즘은 마음이 좀 어떠세요"하고 물으니 고개를 떨군다. "스님, 제가 아내를 가게 한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없이 중환자실을 오갔지만, 한 번도 아내를 보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아내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내면서 정말 아내가 떠나가 버렸고, 그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괴롭다고 하였다.

"거사님,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만, 아내분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사님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하고 물으니, 다시 고개를 떨군다.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할지 막막했다. "제가 느끼기에 거사님께서 많이 외롭고 허전하신 것 같아요"하니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랬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 거사는 이제 아내 없는 시간 속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기억하며 산단다. 미뤄두었던 다리 관절 수술도 했고, 이제 건강한 마음의 다리도 생긴 것 같다. 다음 생에 꼭 만날 거라며. 다음 생에 만나면 더 잘해주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는 '아내를 위한 사모곡'에 코끝이 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템플스테이로 '사회치유' 나서야

코로나 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사회적 아픔과 갈등, 지친 마음들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 계획을 밝히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해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일반인 대상 템플스테이를 거의 운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방역 관계자와 의료인, 소상공인과 여행업계 관계자 등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고통으로 힘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꺼이 템플스테이에 초대했다. '쓰담쓰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긴 시간 방역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을 하며 에너지가 고갈된 방역 · 의료인들은 잠시나마 산사에 몸과 마음을 의탁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생계의 절벽에 내몰린 채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던 시민들 역시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 살아갈 의지를 다졌다.

치유와 정화는 템플스테이가 가진 힘이다. 이는 사찰이 불교라는 종교적 공간을 넘어,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곁에서 함께해 온 공간으로서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올한해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사회적 치유활동에 대중들의 관심이 모이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홍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는 물론, 사찰음식과 불교문화 등 전통을 활용한 사회치유 기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 본연의 가치 드러내야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의 변화는 곧 그 일상을 영위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전세계적인 문화 흐름과 아젠다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문화 확산, 뉴노멀과 저성장사회 등 우리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개념은 개인주의, 인간소외를 예고하기도 한다. 인간은 더 소외되고 외롭고 우울해 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인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종교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럼에도 종교를 향한 현대인들의 냉소적인 시선, 탈종교화는 종교 본연의 가치와 역할마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종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은 코로나 이후 종교에 대한 모든 고민과 대안, 그리고 방향성이 담긴 연구보고서다. 시대적 변화에 직면했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종교, 종교를 지원하고 본연의 가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역량은 부족한 정부정책과 행정에 대한 고민이 그 출발점이다.

국민과 종교간 거리를 좁히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불교 뿐 아니라 각 종교계가 당면한 문제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함께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종무행정 또한 이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적 변화는 이미 도래했다. 이제, 종교가 변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새해에도 BTN과 함께
어두운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이고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튼다
성우스님 시집 '마음'발췌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불기 2565년

새해맞이

촛불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촛불을 켜는 것은

현실에 살면서 닥치는 대로 과거를 멸해버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자꾸 융성시키고 증장시키면서

영원토록 꽃 피고 열매 맺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촛불 하나가 과거와 미래를 한데 합쳐

현실에 나와서 두루 비추는

영원한 밝음입니다.

- 대행선사 법어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2021년 2월 12일 ~ 14일까지 (음1.1~1.3) (오전) 10시 30분 - 사시 예불 후 합동 천도재 (오후) 5시 30분 - 저녁 예불후 촛불재